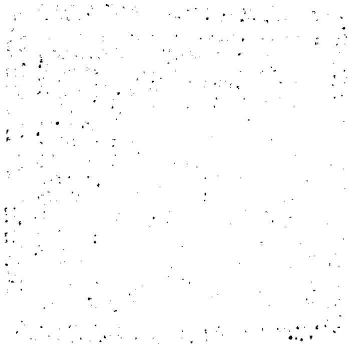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2次 會議錄 —

1989. 10.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 議 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83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0. 6 (金) 10:00 ~ 12:23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首席代表〉 宋 榮 大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	〈團　長〉 박 영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務委員)
〈代　表〉 李 竣 熙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李 柄 雄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代　表〉 김 광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 정 덕 기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榮大):자주만나 반갑습니다.

北(박영수):오래간만입니다.

南(宋榮大):악수 많이하는 것 좋지요.

지난 며칠사이에 좀 쉬셨습니까?

北(박영수):예, 오늘은 날씨가 좋구만!

南(宋榮大):예.

南(李峻熙):뭐, 오늘 잘 될려고 그래요.

北(박영수):구름한점 없는 날씨예요.

南(宋榮大):내가 지난번에 그때에 비오는 날 만났기 때문에 우리 南北赤十字會談이 雨期에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해가 쨍쨍쪼이는 맑은 날씨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매우 清明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人道主義事業의 앞날이 상당히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오늘 날씨 …….

北(김광수):오늘 날씨 좋았어 좌우간에 …….

南(宋榮大):지난번에 우리 接觸結果에 대해서 內外反應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우리側 言論들은 대체로 報道를 하기를 故鄕訪問團의 年內交換 問題에

관해서 雙方間 의견이 接近되었다. 또 이번 赤十字 實務接觸이 南北關係에 물꼬를 틀것같다 하는 식으로 아주 肯定的으로 報道했습니다.

또 外信도 보니까 主要 世界通信들이 일제히 우리 接觸結果를 報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봐서 오늘 우리 接觸에 內外의 關心과 期待가 더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의 責任이 더 重하고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北(박영수):우리가 赤十字會談을 하면서 北南對話의 역사가 이제 滿 18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赤十字가 70年度 會談할 때에도 먼저 開拓者의 役割을 했고, 또 85年度에 84年度에 救護物資 引渡·引受, 이거 역사적 事變이 아닙니까?

85年度에 藝術團·故鄕訪問團 成事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赤十字가 다른 누구 보다도 앞장서서 항상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요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뒤질 수 있다하는 이런 憂慮가 조금 생긴단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政治人들은 벌써 統一方案들을 서로 내놓고는 그걸 이젠 하나로 討議하자 이런 段階까지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래 며칠전에 우리 政府·政黨·團體 사이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편지까지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한테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 우리가 努力을 다그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理解안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전번에 赤十字에다가 便紙를 依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 政府·政黨·團體會議에서 採擇된 便紙를 當局하고 政黨·團體들에 傳達해 주십시요 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赤十字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원래 赤十字가 지금 北南間의 連絡通路는 赤十字밖에 없는데 赤十字가 이것을 안해주면 야단이 아닙니까? 이거 統一을 위해서 좋은일 하자고 하는 것들인데 …….

그런가하면 또 어제 우리한테 通知文 보냈던가요? 어제 通知文 보냈지요, 그 무슨 佛教團體들에서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傳達하겠다 나와달라,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또 다른 團體들이 거기서 보내는 것은 또 赤十字가 하겠다고 그러고 …….

그래서 이런일이 지난시기 없었는데 今年에 들어와서 이게 몇번 反復되는것 같아요. 그쪽 赤十字社에서 어떤 사람 付託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 付託은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저 連絡通路는 지금 하나 밖에 없으니까 좋은일 하겠다는 사람들 連絡員 노릇 우리 잘해 줍시다.

南(宋榮大): 나는 이 直通電話가 雙方 赤十字間에 架設되어 있는 만큼 이 直通電話를 통해서 意思나 便紙를 傳達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人道的 目的과 그밖에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目的에서 運營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그동안에 雙方이 주고 받는 便紙나 通知文의 성격이 人道的일 경우에는 우리 赤十字社가 主管을 해서 處理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고 받는 便紙나 通知文의 性格이 人道的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컨대 統一問題라든가 政治問題일 경우에는 우리 政府 承認下에서 傳達業

務를 遂行해 왔습니다.

또 統一問題는 어디까지나 權限과 能力을 갖고 있는 雙方 當局이 中心이 되어서 推進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赤十字가 人道主義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獨立性을 維持하되 자기나라 法 秩序를 遵守해야 된다라고 하는 赤十字의 原則과도 符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9日날 貴側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電話 通知文을 보니까 連席會議와 關聯해서 南側의 當局·政黨·團體앞으로 便紙를 보낼테니까 南側 赤十字 連絡官, 나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이 性格이 人道的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해서 우리 政府와 協議한 結果 우리 當局 앞으로 오는 便紙만 받아서 傳達해 주겠다 하는 뜻을 貴側에 通報했고 그 便紙를 받기 위해 지난 4日날 午後에 우리가 連絡官을 板門店에 보내겠다 하고 通報했는데 貴側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相應한 措置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선생이 자꾸 이것을 歪曲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

北(박영수):자, 저 …….

南(宋榮大):이제 가만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아직 말 안끝냈으니까 …….

北(박영수):이런데서 歪曲이라면 안돼요.

南(宋榮大):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가지 貴側에 당부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 赤十字 直通電話를 人道的 目的 또는 그밖에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目的 以外에 다른 目的으로

는 利用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付託드리고 또 하나는 만약 貴側 當局이 이번에와 같은 그런 類의 便紙를 우리側에 보낼려고 한다면 南北 두 當局間에 遞信協定이라던가 通行協定 같은 것을 締結토록 貴側 赤十字가 貴側 當局에 建議해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北(박영수):이제 무슨 歪曲이다 뭐다 했는데, 그것은 完全히 不當한 말이라고 내가 反駁을 하고…….

赤十字가 人道的 目的을 띤 連絡만 한다. 물론 이것 해야지요. 自己 우리 赤十字니까, 赤十字니까 그런 人道主義的인 問題를 連絡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赤十字社가 70年代에 合意한 事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간다. 이것 赤十字가, 우리가 이것 雙方 合意事項이거든요? 이건 우리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쪽하고 合意한 거란 말이예요.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려면 統一事業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이 連絡이야 왜 못해주겠는가?

連絡이 뭐, 우리가 그 統一問題를, 連席會議 問題를 赤十字끼리 討論하자는 게요, 뭐요. 그게 아니고 그저 대상들에게 便紙를 傳達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人道的 問題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 그렇다면 내일 傳達하겠다는 佛敎團體에서 오는 것도 그게 人道的인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쪽 赤十字에서 當局에서 오는 것은 連絡을 잘 해주었단 말입니다. 當局에서 오는 것은…… 그게 人道的인 問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때는 人道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줄때는 이건 非人道的이 되어서 못받겠다고 하고, 그쪽에서 할때는 이 뭐 非人道的인것, 政治的인 것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애당초 公正하게 原則을 세우고, 이런 것은 일체 못한다 하면야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룩덜룩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主要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赤十字가 雙方 合意事項이 있으니까 統一을 위해서, 統一에 利로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連絡을 받으려고 할 때 그건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雙方 合意事項이예요, 우리가 合意事項에 따라서 지니고 있는 義務란 말이예요.

그건 뭐 參考를 하시요. 내가 그저 오늘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오손도손 일을 잘해 나가야지.

南(宋榮大): 저, 朴先生! 조금 理解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北(박영수): 아니, 그건 뭐…….

南(宋榮大): 가만히 계셔요.

北(박영수): 理解고 뭐이고 없어요. 다만 보면 그저 앞으로 다 그저 連絡을 해주면 돼요.

南(宋榮大): 우리 赤十字가 70年代初에 合意를 하기를 人道主義事業을 잘해서 그 結果로 統一에의 디딤돌이 되도록하자 이렇게 合意를 했습니다.

北(박영수): 예.

南(宋榮大): 그것은 分明히 해야되고, 또 지금 貴側에서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받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分明히 말한 바와같이 지금 우리側에서 便紙를 주고 받을 때의 그 基準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人道的 目的에 期하여야 된다. 또 하나는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것이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人道的 目的에 관한 것은 우리 赤十字가 다 主管해서 합니다. 그리고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判斷의 與否는 우리 政府가 내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統一問題는 責任과 權限을 가지고 있는 雙方 當局이 中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見地에서 우리側에서는 對北交涉·交流의 窓口는 政府로 單一化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貴側에서 이 電話利用을 어떻게 해왔는가. 70年代初에 架設된 以後에 죽 運用되어 오다가 1976年부터 1984年까지 8年동안 貴側에서 電話를 一方的으로 斷絕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分明한 記錄이예요. 또 이것이 再開된 以後에도 貴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人道的 目的·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目的 以外에 다른 目的을 가지고 運用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文教部長官의 便紙를 그쪽에 보내려고 할 때에도 貴側에서 便紙의 接受를 拒否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히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前例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注意하면서 이 直通電話 架設의 基本趣旨에 맞게끔 좀 잘 運用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北 (박영수) : 便紙傳達하고 하는 것을 무슨 當局이 判斷하여서 한다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 赤十字가 獨立性의 原則이란 말이예요, 아까 宋先生도 이야기 한 것 처럼 …….

獨立性이라는게 뭡니까? 政治的 見解·主張에 거기에 相關하지 말고 自己가 判斷, 獨自的인 判斷을 해가지고 거기에 自己가 必要하다고 하며는 하는 일이 그게 獨自性이 아니겠오?

무슨 南北對話, 무슨 對話窓口를 政府로 一元化한다는 그런 主張까지 여기 나와서 하는데, 그런 것은 必要없어요.

對話窓口 一元化하여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는 내가 여기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게 오늘 우리 接觸의 性格과 맞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일단 發言을 保留하겠는데 …….

南 (宋榮大) : 그런데 …….

北 (박영수) : 가만, 조금있어요.

獨立性이라는게 그렇지 않아요? 當局에서 決定해 주어야 한다. 赤十字가 그러면 自己 獨自性은 뭘로 지킵니까?

우리가 70年代 統一의 디딤돌로 돼가자 했고 그리고 基本 다섯가지 原則을 合意볼 때에도 「7.4共同聲明」의 精神을 具現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統一에 利롭고 統一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못해주겠는가?

그리고 그쪽 政府에서 判斷하는 것도 그렇지요. 이게 北南關係 改善에 利로운 것인가 利롭지 않는가 하는 것을 判斷한다는데, 아니 그래 統一方案, 雙方 지금 當局에서 統一方案, 우리는 물론 80年代에 統一方案을

내놓았지마는, 그쪽에서 이거 9月달에 統一方案을 내놓았는데 그것 다 놓고 같이 討論하자.

이게 그래 北南關係 改善에 利롭지 않다는 거란 말인가? 에이, 이 問題 이렇게 말하지는 말아야지…….

南(宋榮大): 朴先生!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만 이것 물어봅시다.

北(박영수): 가만히 계셔요. 이제는, 이쪽 政權은 처음부터…….

南(李柄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獨立性」이야기를 하는데, 가만계셔요.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北(박영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南(李柄雄): 獨立性 原則 이야기를 하는데…….

北(박영수): 아, 이것 웅고집 보통 手段이 아니구나…….

南(李柄雄): 獨立性 原則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 政治的 論爭에 介入해서는 안되고…….

北(박영수): 물론…….

南(李柄雄): 政府의 國內法規를 遵守하라고 規定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便紙를 보낼때에 이것이 人道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判斷을 해서 보내야 될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北(박영수): 아, 이것 누가 우리 人道的이라고 그랬나?

이건 人道的인 것은 아니지만…….

南(李柄雄): 그래 그러니까 便紙가 또…….

北(박영수): 統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예요.

南(李柄雄):내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어요.

가사 우리가 便紙를 받는다 하더라도…….

北(박영수):예,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단 말이야.

南(李柄雄):어떤 問題가 있느냐?

자 이러이러한 團體를 指定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 이말이예요.

北(박영수):무슨? 무슨…….

南(李柄雄):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한 團體가 죽 있는데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團體에 赤十字가 傳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傳합니까?

北(박영수):왜, 못 傳해주겠어요?

南(李柄雄):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北(박영수):그쪽에서 왜 저…….

南(李柄雄):政府當局하고 協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죠.

北(박영수):交流推進委員會에서랑 보내는 便紙는 왜 잘 傳達해 주어요?

南(李柄雄):그러니까 우리가 協議를 해서,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協議를 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連絡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보냈지요?

北(김광수):그런데 왜 저…….

南(宋榮大):가만,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貴側에서 人道主義 活動하는데, 人道主義 活動하는데 貴側 國內法規를 遵守합니까? 안합니까?

北(박영수):가만있어, 이야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南(李柄雄):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貴側에서 꺼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北(박영수): 이야기가 마저 들어가니까…….

南(宋榮大):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使命이 아니예요.

北(박영수): 가만있어, 가만있어 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좀 整理를 해야되겠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그랬는데, 이 柄雄先生 아주 固執을 쓰면서 밀고 들어오니까 方法이 있는가.

그래 내…….

南(李柄雄): 경우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北(박영수): 이것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南(宋榮大): 좋습니다. 그럼 우리…….

北(박영수): 앞으로 오손도손 協議를 해서 잘해나가면 돼요. 자 이제……

南(李柄雄): 하여간 그쪽에서 이제 잘 진정을 해서 時間이 많이 갔는데.

南(宋榮大): 자, 이제 時間이 없으니까 會談 시작합시다.

北(박영수): 整理를 하고 會談을 합시다.

南(宋榮大): 지난번에 우리가 合意하기를 오늘 會談은 非公開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方向으로 進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非公開같으면 자리를 조금 整理해야 되겠지요?

北(박영수): 글쎄, 그저 내 전번에도 말을 했지만 뭐, 赤十字會談하면서 자꾸 非公開, 非公開하는것 그다지 좋지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이 記者들 지금 뭐 열성적으로 取材하는것, 이쪽 봐달라 저쪽 봐

달라 그 付託 들어주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왔다가 會談內容 전혀 듣지도 못하고 들어갈 바에야는, 우리 記者들은 지금 500里 길을 달려왔는데, 뭘하러 여기까지 오겠는가? 平壤에 앉아서 내가 올라가서 記者會見하면 되는건데.

그래 그런 意味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원래는 우리 赤十字 原則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公開性 原則이거든?

다 내어놓고, 그래야 이제 우리 雙方 赤十字가 일을 하는데, 아 이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어느 쪽에서 잘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批判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그래야 우리 事業이 잘 돼나가는 것이고…….

그런 意味에서 나는 딱 公開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뭐, 정 非公開로 하자고 그러니까 어쩌겠어.

雙方會談인데 한쪽에서 公開로 하자고 그랬는데 해주어야지 뭐…….

南(李峻熙):아니, 지난번에 合意를 하지 않았어요?

北(박영수):뭐, 그것가지고 계속 싸움하겠어요?

非公開로 합시다, 그러면.

南(宋榮大):合意事項은 遵守하는게 會談進行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지요.

北(정덕기):뭐, 원래 좋은 일 하는데 다 듣는데서 하는게 좋지요. 난 뭐…….

南(李柄雄):아니 實質討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지요.

南(宋榮大):누구의 要求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合意事項을 지키는 거예요.

北(박영수):뭐, 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겠오?

그만하고 그저 場內整頓이나 하고…….

南(宋榮大):자, 그러면 우리 記者先生들 조금 場內整理에 協調해 주십시요.

北(김광수):뭐, 좋은게?

南(李柄雄):글쎄, 우리도 좋은 것 많이 가져 왔는데, 그쪽에서도 좋은 것 많이 가져왔겠지. (一同웃음)

北(정덕기):우리는 그저 한번 올 때마다 진짜 500里길 걷습니다.

南(李柄雄):글쎄, 먼 길 오시느라고 手苦하셨습니다.

北(정덕기):그래서 올라갈 때 좀 좋은 消息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南(李峻熙):그 동안에 뭐 硏究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北(정덕기):아, 예. 이거 좋은 消息가져가야 되겠는데…….

南(李峻熙):어제 내려왔습니까?

北(정덕기):예.

北(박영수):오늘 10月 6日 아네요? 내일 모레가 寒露란 말이예요, 節氣로. 寒露가 이제 찬이슬 내린다는 季節인데.

지금 季節的으로 말이죠. 金剛山에 가봐야된다, 지금 金剛山에 가 보아야 된다.

난 매해 이 季節에 10月 5日부터 10日 사이에 金剛山에 꼭 저 休養, 休息을 가는데, 그 단풍이라는 것은 뭐 이거 말로는 다 表現치 못하죠.

그래서 金剛山 가을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가 그 전에도 언제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楓嶽山이라고.

南(宋榮大):그래요.

南(李柄雄):그래, 그래요.

北(박영수):그래 이 丹楓든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흥분되고 아주 장쾌해지고 …….

한번 後에 한번 같이 갑시다.

南(李柄雄):後에 아니라 今年에 가도록 한번 가도록 주선을 해보세요.

南(宋榮大):우리가 뭐 先導的 役割을 하자고 했는데 …….

北(박영수):아, 그렇지요.

南(宋榮大):우리가 먼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터야지요.

이 첫發言 問題는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오늘 朴先生 먼저 하시지요.

北(박영수):뭐, 그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一同웃음)

南(李柄雄):오늘은 좋은 消息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北(박영수):내가 그러면 오늘 接觸에 임하는 우리側의 基本立場에 대해서 發言을 하겠습니다.

〈北側 基本發言〉

南側代表여러분!

지난 9月 27日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北南赤十字會談이 中斷된 때로부터 4年만에 처음으로 實務代表接觸을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우리들의 첫 接觸은 기대와는 어긋나게 아무 結實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實務代表接觸이 하루속히 成果的으로 結束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기대에 副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接觸이 空轉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며 實質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對話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雙方의 立場과 誠意如何에 달려있는 問題입니다.

나는 오늘 第2次 實務接觸에 임하는 마당에서 眞實로 北과 南을 超越한 民族的 立場에서 그리고 우리 赤十字人들에게 고유한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誠意를 가지고 上程된 問題들을 虛心하게 討議해야 하겠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同時에 우리들의 實務接觸이 早束히 成果的으로 結束되기를 希望하면서 1次接觸에서 提起된 問題들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밝히려고 합니다.

다아는 바와같이 지난번 接觸에서 우리들 사이에 協議된 基本問題들은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와 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交換問題, 赤十字本會談 再開問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內外의 關心이 集中되여있고 또 우리 赤十字人들로서도 그저 지내보낼수 없는 切迫한 問題는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입니다.

이와 關聯하여 우리는 貴側에 《全民聯》 顧問인 文益煥牧師와 《全大協》代表 林秀卿學生, 《天主教正義具現全國司祭團》代表 文奎鉉神父의 身邊에 닥쳐오고 있는 危險에 關心을 돌리고 그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應當한 努力을 기울일데 대하여 提起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問題가 어디까지나 北南赤十字團體들의 主要 關心事項으로 되

어야 할 問題이며 따라서 응당 이 마당에서 論議할 수 있는 問題라고 看做하고 있습니다.

貴側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赤十字團體들은 自己 活動에서 반드시 具現하여야 할 基本原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國際大會에서 確認한 赤十字人道主義 原則입니다.

第 20 次 國際赤十字大會에서는 赤十字人道主義 原則에 대하여 일곱가지로 規定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人道性의 原則과 公正性의 原則은 다음과 같습니다.

《赤十字는 苦痛이 있는곳은 어데를 莫論하고 國際的 및 民族的 資格으로서 人間의 苦痛을 防止하고 輕減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그의 目的은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人間을 尊重케 하려는 것이다.》

《赤十字는 國籍, 人種, 宗教的 信仰, 階級 또는 政治的 見解와 關聯하여 差別을 두지 않는다.》

이 原則에 따라 모든 赤十字團體들은 人間의 不幸과 苦痛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原因에 의해 어디에서 發生하였던 關係없이 그것을 가셔주기 위하여 응당한 努力을 경주해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우기 雙方 赤十字團體들은 北과 南을 莫論하고 分裂로 인하여 民族이 겪고있는 不幸과 苦痛에 대하여 無關心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70年代에 北南赤十字會談이 統一을 앞당기는데 寄與해야하며 統一의 디딤돌을 쌓아가도록 할데 대한 大前提에 合意한 것도 바로 그러한 意圖에서 出發한 것입니다.

그런데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로 말하면 추호의 私心도 없이 오로지 44年동안 持續되고 있는 民族分斷의 悲劇을 끝장내고 民族

的 和解를 圖謀하고 北南對話를 促進시키며 民族의 宿願인 統一을 앞당기려는 一念에서 共和國北半部를 訪問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平壤을 訪問하여 한 일이란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分裂의 苦痛을 겪고있는 우리 民族을 위한 것이였으며 나라의 統一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한마디 해도 또 北의 該當機關들과 聲明이나 宣言을 採擇하여도 民族끼리 反目하고 嫉視하지 말고 和解하고 團合하여 統一을 앞당겨 나가자고 웨쳤을뿐 民族앞에 罪로 될 일을 한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罪人으로 될 수 없으며 마땅히 나라의 統一을 바라는 만사람들의 祝福을 받아야 합니다.

罪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法을 適用하여 拘束하고 處刑하려는 것은 明白히 人間의 尊嚴에 대한 蹂躪이며 사람에 대한 迫害行爲입니다.

그런데 人間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을 使命으로 하고있는 우리 赤十字人들이 그들에게 加해지고 있는 이러한 非人道的 處事를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文益煥牧師로 말하면 雙方 赤十字團體들의 事業對象인 離散家族의 한사람이고 北에 와서 北南사이의 人道主義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한 사람입니다.

北에 와서 人道主義 問題를 解決하고자 努力한 사람이 바로 그것이 《罪》가 되여 苦痛을 받고 身邊에 危險을 당하고 있는데 人道主義 問題解決을 直接 擔當하여 나서고 있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坐視默過한다는 것은 民族的 見地에서는 물론 人道的인 見地에서나 道義的인 見地에서도 온당한 處事라고 볼수 없습니다.

貴赤十字社가 人道主義 原則에 充實하다고 하면 政治的見解가 어떻든 相關없이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處하고 있는 不幸과 苦痛에 대하여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말아야 하며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서 그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응당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意思일뿐 아니라 世界 良心들의 절절한 呼訴라는 것을 貴側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正義를 貴重히 여기는 180餘個國의 人民들과 政黨, 社會團體, 各界人士들은 思想과 政見의 差異를 超越하여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釋放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月1日부터 10日까지 이딸리아에서 進行된 青年赤十字會合에 參加하였던 윁남, 쟈메이커, 자이르, 예멘아랍공화국, 솔로몬제도, 잠비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리비아, 산토메프린시페, 베르데갑,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크, 소말리아, 마다까스까르 代表들은 林秀卿學生과 文奎鉉神父의 釋放을 要求하여 9月10日 共同聲明을 發表하였습니다.

그리고 中國, 獨逸民主主義共和國, 윁남, 자이르, 예멘아랍공화국, 나미비아, 리비아, 탄자니아,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마다까스까르, 모잠비끄, 앙골라, 기네－비싸우, 칠레, 도미니카, 산토메프린시페, 베르데갑, 에꽈또르 代表들은 林秀卿學生과 文奎鉉神父를 釋放하기 위한 署名運動에 參加하여 170萬6千2百餘名의 自己 組織成員들을 代表하여 署名文에 수표하였습니다.

지금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의 釋放運動은 世界各地에서 날을 따라 더욱 擴大되고 있습니다.

世界의 목소리가 이러한데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와 피줄

을 나눈 朝鮮의 赤十字人들이 어떻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不幸과 苦痛에 대하여 外面하고 있겠습니까.

貴側이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 問題가 南朝鮮의 《內政問題》라고 하는 問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理致에 맞지 않습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 問題는 南朝鮮 內部問題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對話는 雙方사이에 進行되며 따라서 對話가 열리고 순조롭게 進行되기 위하여서는 一方이 他方을 刺戟하고 雙方사이의 關係를 惡化시키는 行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一方이 他方을 刺戟하는 行動을 하고 그것으로 하여 雙方사이의 關係가 惡化되고 있는 條件에서는 애당초 對話가 열릴수 없으며 설사 열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순조롭게 進行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난 北南對話의 歷史가 말해주는 客觀的인 現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南朝鮮에서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攻擊하면서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迫害하고 있습니다.

우리側 該當機關과 對話를 하고 좋은 合意를 하고 돌아간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貴側當局이 彈壓하는 것은 明白히 對話一方인 우리에 대한 좋지않은 態度의 表示로서 이것은 北南關係와 對話雰圍氣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를 本接觸에 上程한것이 充分한 根據가 있다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지난번 接觸때 우리의 正當한 要求를 그대로 받아들이

지 않았을 뿐 아니라 第1次接觸이 끝난 때로부터 열흘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하며 속한 時日안에 貴赤十字社가 어떤 形態로든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措置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接觸에서는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와 本會談再開問題를 놓고 意見을 交換하였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이 提起한 方案들을 보면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와 本會談再開問題를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解決한다는데 대해서만 見解가 一致되고 있을뿐 나머지 問題들에서는 差異點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로, 第2次 藝術團, 故鄕訪問團의 交換날자와 第11次 赤十字本會談의 再開날자 問題입니다.

우리側은 第2次 藝術團, 故鄕訪問團의 交換날자를 11月8日로, 第11次 赤十字本會談의 再開날자를 12月15日로 提起하였고 貴側에서는 第11次 赤十字本會談의 再開날자를 11月1日로 그리고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交換날자를 12月8日로 提起하였습니다.

우리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第11次 赤十字本會談再開 날자보다 앞세운것은 우선 어떻게하나 北과 南 사이에 對話의 雰圍氣를 마련하고 赤十字本會談이 순조롭게 推進되어 나갈 수 있게 하려는데 그 基本趣旨가 있습니다.

지금 北과 南 사이에는 赤十字實務代表接觸이 進行되고 本會談도 再開될 展望이 열리고 있지만 北南사이의 誤解와 不信은 여전히 解消되지 않

고 있으며 그것이 날을 따라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點에서는 雙方 赤十字團體들 사이에서도 例外로 될 수 없습니다.

相對方의 善意를 善意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疑心부터 앞세우는 오늘과 같은 형편에서는 앞으로 本會談이 再開된다고 하여도 成果的으로 推進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赤十字本會談을 再開하고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순조롭게 進展시켜 나가려면 對話의 雰圍氣를 마련하는 것이 時急한 問題로 나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雙方 赤十字團體들이 이미 進行한 좋은 先例와 經驗에 基礎하여 第2次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먼저 實現함으로써 北과 南 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雰圍氣를 造成하고 本會談이 잘 進行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時急히 함으로써 비록 部分的이기는 하지만 北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에게 相逢의 기쁨을 直接 안겨주고 그에 대한 希望도 안겨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貴側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보다 本會談을 앞세우자고 함으로써 當面한 人道主義問題들을 풀어 나가는데서 先後次를 混沌하여 提起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의 規模에서 우리는 藝術團 300名, 故鄕訪問團 300名, 이렇게 同數로 提起하였는데 貴側은 藝術團 50名, 故鄕訪問團 300名으로 할 것을 提起하였습니다.

원래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問題로 말하면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1985年에 北南雙方이 象徵的인 事業으로 하기로 合意하고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各各 50名씩 同數로 構成하여 實現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實施하는 條件에서는 前例를 그대로 살리면서 發展的으로 늘여 나가는 것이 正常的일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貴側이 提起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構成提案은 會談의 좋은 雰圍氣를 마련하기 위해 다같이 重要한 藝術團, 故鄕訪問團 事業을 놓고 어느 하나만 重視하고 다른 하나는 忽視하는 것으로서 先例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셋째로,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訪問地와 關聯하여 우리는 平壤과 서울로 提起하였고 貴側에서는 故鄕訪問團은 故鄕까지 가고 藝術團公演은 平壤과 서울에서 하자는 것으로 提起하였습니다.

우리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의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定하게 된것은 이 事業이 어디까지나 象徵的으로 進行하는 事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이 마음대로 故鄕에도 가고 血肉들과 自由롭게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本會談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흩어진 겨레들의 自由來往을 實施한데 대한 問題를 討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이 故鄕에까지 가도록 하자면 本會談을 하루속히 結束해야 합니다.

그런데 象徵的인 事業으로 進行하는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면서 故鄕訪問團成員들이 故鄕에까지 가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른 小規模의 本會談을 하게 되는것과 같은 結果가 發生하게 될것입니다.

넷째로, 故鄕訪問團의 對象選定에서 우리는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고 하였는데 貴側은 家族,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定된 對象들을 故鄕訪問團에 優先 包含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故鄕訪問對象을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는 것은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하는 條件에서 극히 自然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貴側의 提案대로 한다면 애당초 故鄕訪問團을 構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北과 南 사이에는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消息調査事業이 實施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그들 가운데 血肉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1985年度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당시 우리側 故鄕訪問團成員들이 서울에 나가 만난 그들의 家族, 親戚들은 自己들의 住所를 거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家族,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對象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家族,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사람들을 爲主로 하여 故鄕訪問對象에 넣는다면 貴側의 提案은 사실상 非現實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藝術團의 交換公演과 關聯한 問題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第2次 藝術公演團의 公演回數를 1次때보다 2回 더 늘여서 4回로 하며 藝術團의 公演을 텔레비죤放送과 소리放送으로 實況中繼할데 대한 建設的인 提案을 내 놓았고 貴側에서는 종전대로 두차례의

藝術公演만을 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公演回數도 늘이고 藝術公演을 實況中繼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은 것은 藝術團을 交換하는 本來의 趣旨와 겨레들의 希望도 考慮한 것입니다.

藝術團을 交換하는 것은 公演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데 1985年때와 같이 몇몇사람들이나 보아서 무슨 큰 意義가 있겠습니까.

現實的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北과 南의 人民들은 85年度에 平壤과 서울에서 進行한 北南藝術團의 公演을 몇몇 사람들만 보고 그것을 實況中繼하지 않은데 대해서 많은 意見들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藝術團을 交換하는 이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公演回數도 늘이고 公演實況을 텔레비죤과 라지오로 中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우기 다른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進行되는 藝術團交換公演時에도 텔레비죤放送이나 라지오放送으로 中繼하는 것이 하나의 慣例로 되어 있는데 同族끼리 進行하는 藝術團交換公演을 實況中繼하는 것은 너무도 自然스럽고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한 見地에서 第2次 藝術團, 故鄕訪問團의 相對側訪問期日은 1次때보다 거의 두배나 늘여 5泊6日로 定하면서도 藝術團의 公演回數를 그대로 둔것이나 實況中繼를 豫見하지 않고 있는것은 事理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藝術團을 交換하는 趣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지난번 實務代表接觸에서 雙方이 내놓은 몇가지 問題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밝혔습니다.

모든 事實을 미루어 볼 때 우리側의 主張과 提案이 오늘의 現實과 赤十字團體들이 具現해야 할 基本原則, 지난時期에 이룩한 雙方 合意事項에 符合되는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나는 오늘 接觸에서 어느모로 보나 妥當한 우리의 主張과 提案을 놓고 한問題씩 진지하게 討議하여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이 實務代表接觸을 지켜보고 있는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消息을 전해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基本發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發言에서도 간단히 言及했지만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사이에 여러가지 問題가 아주 깊이있게 論議가 됐는데 오늘 接觸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런 問題들을 될수록 마무리 짓고 온 겨레에게, 또 흩어진 家族들에게 기쁜 消息을 전해주게 되기를, 또 그를 위해서 또 우리 各者가 진지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南(宋榮大): 내가 첫 發言을 하기에 앞서서 優先 한마디만 指摘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1次 接觸때에 文益煥·林秀卿·文奎鉉神父 問題는 赤十字會談과는 關聯이 없는 會談外的 問題라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이 問題를 또다시 거론한데 대해서 오늘 會談에 임하는 貴側의 진의가 무엇인지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貴側姿勢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會談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나는 이 問題에 대해서 더 이

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發言을 하겠습니다.

〈우리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雙方은 지난 1次 接觸때, 南北離散家族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데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各其의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第1次 接觸에서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比較하여 볼 때, 本會談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모두 今年안에 實現시키자는 데는 認識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具體的 時期, 規模, 訪問地, 方法 등 諸般 推進節次問題에 있어서는 意見의 差異點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貴側의 理解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번에 우리측이 내놓은 提案의 趣旨에 대해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本會談의 再開問題 입니다.

우리측이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을 오는 11월 1일로 提議한 것은 南北離散家族問題 解決에 있어 本會談이 차지하는 比重과 그 切迫性 등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人道主義事業을 원만히 解決하기 위해서는 1千萬 離散家族 全體의 不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폭넓게 풀어주는 努力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本會談 議題 5個項事業을 實踐에 옮길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中斷된 第11次 會談을 하루빨리 開催하여야 합니다.

本會談의 早期開催와 이의 妥結이야말로 離散家族들의 不幸과 苦痛을 解消하는 根本的 解決方法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限 最短時日內에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貴側도 第11次 會談을 오는 12월 15일로 提議한 바 있으므로 雙方間에 날짜조정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合意에 到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 입니다.

우리측은 우선 訪問團規模에 있어 團長 1명을 비롯해 故鄕訪問團 각 300명, 藝術公演團 각 50명, 取材記者 각 100명, 支援人員 각 50명 등 各其 總 501명의 規模를 提議하였습니다.

또한 訪問地 및 公演場所에 관해서는 離散家族들은 自己 故鄕을 직접 訪問하여 家族과 親戚을 相逢하고 省墓를 하도록 하며, 藝術公演團은 서울과 平壤에서 公演하고, 그 時期는 오는 12월 8일부터 5泊 6日 日程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우리측의 이같은 立場은 離散家族들의 意思와 念願을 충실히 反映하고 이번 第2次 訪問團交換事業의 趣旨를 잘 살리며 貴側 立場까지도 함께 考慮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측 離散家族들은 本會談의 早速한 再開와 妥結을 바라는 한편으로 이번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에서는 지난번 보다는 그 規模가 擴大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가 自己 故鄕까지 直接 가서 家族과 親戚를 만나고 省墓도 하기를 苦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측 離散家族들은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는 性格上 離散家族 故鄕訪問團과는 다르므로 南北赤十字事業 次元보다는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離散家族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大多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離散家族들과 겨레의 意思와 念願을 충실히 反映시키는 立場에서 이 事業을 推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事業의 基本趣旨를 再吟味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측이 지난 1985년 12월, 第10次 本會談에서 第2次 訪問團 交換事業實施를 貴側에 提起한 後 계속 强調해 온 것은 藝術公演團 交換보다는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交換에 있었습니다. 貴側도 第1次 接觸時 첫 發言에서 第2次 訪問團交換의 趣旨가 離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는 데 있음을 分明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第2次 訪問團交換의 趣旨가 離散家族의 苦痛解消에 있다고 할 때, 그 事業의 중심은 마땅히 離散家族 故鄕訪問團에 두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規模나 訪問地 面에서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問題는 藝術公演團과는 달리 생각하고 그 實踐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입니다.

더욱이 雙方 모두 「故鄕訪問團」이라는 表現에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는만큼 이름 그대로 離散家族 當事者가 自己 故鄕까지 直接 가서 血肉을 만나고 省墓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고 事理

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離散家族들과 겨레의 意思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이번에 또 다시 訪問團에 藝術公演團을 包含시켜 서울・平壤에서 公演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貴側의 立場을 考慮한 때문인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측이 本會談 進行과 第2次 訪問團事業 推進에 따른 諸般 細部節次問題는 先例에 따라 推進하자고 한 것은 이 두가지 事業을 하루속히 쉽게 實踐에 옮겨 보려는 뜻에서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貴側도 이미 具體的 提案을 내놓았으며 雙方 立場을 비교해 볼 때 큰 差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南北赤十字會談 再開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가 離散家族들의 意思와 事業本然의 趣旨에 맞는 方向에서 協議・解決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이에 關聯된 우리측의 提案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南北赤十字會談 再開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에 관한 提案

1. 本會談 再開問題에 관한 提案

(1) 本會談 日字 및 場所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은 1989년 11월 1일 平壤에서 開催하며, 第12次 會談은 1990년 1월 18일 서울에서 開催한다.

(2) 本會談 議題 및 討議方法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는 豫備會談에서 合意하고 第1次 會談에서 確認한 다음과 같은 5個項으로 하고, 이를 一括討議・解決한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에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는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問題

⑤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3) 代表團 構成

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赤十字社 副總裁를 首席代表로 하고 首席代表를 包含한 代表 각 7명, 諮問委員 각 7명, 隨行員 각 20명, 報道陣 각 50명으로 한다.

(4) 身邊安全保障

相互 往來開始 1週日前에 身邊安全保障 聲明을 發表하고, 그 文本을 交換한다.

(5) 其他 運營節次

本會談 運營 및 其他 節次는 慣例에 따른다.

2.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에 관한 提案

(1) 訪問團의 名稱

訪問團의 名稱은 각기 便利한대로 呼稱한다.

(2) 訪問團의 構成 및 規模

가. 訪問團은 雙方 赤十字社 責任者를 團長으로 하여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藝術公演團, 取材記者 그리고 支援人員으로 構成한다.

나. 訪問團의 規模는 團長 1명을 包含하여 각기 總 50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① 故鄕訪問團은 300명으로 한다. 故鄕訪問團은 南과 北에 故鄕을 둔 離散家族들로 構成하되,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 優先的으로 이에 包含시킨다.

② 藝術公演團(製作陣과 出演陣)은 50명으로 한다.

③ 取材記者는 100명으로 한다.

④ 支援人員은 50명으로 한다.

(3) 訪問團 交換方法

同時 交換訪問 方式으로 한다.

(4) 訪問時期

交換訪問時期는 1989년 12월 8일 — 12월 13일(5泊 6日)로 한다.

(5) 訪問地 및 公演地

가. 故鄕訪問人員의 訪問地는 자기 故鄕으로 한다.

나. 藝術公演團의 公演地는 서울과 平壤으로 한다.

(6) 相逢의 周旋과 範圍

가. 雙方은 故鄕訪問團 人員들에 대해 赤十字人道主義 原則에 따라 그들이 故鄕을 訪問하고 血肉을 相逢하며 省墓하는 데 필요한 모든 便宜를 提供한다.

나. 相逢의 範圍에 있어 直系 尊·卑屬은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 이후에 出生한 家族을 包含하고, 親戚의 경우 傍系는 8寸, 妻·外家는 4寸으로 하되 本人의 希望에 따라 生死, 所在가 確認된 親

戚도 包含한다.

(7) 藝術公演團의 公演場所 및 回數

가. 公演場所는 公演施設이 完備된 劇場으로 한다.

나. 公演回數는 2回로 한다.

(8) 公演內容

가. 公演은 民族傳統 歌舞를 中心으로 하며, 相對方을 誹謗·中傷, 자극하지 않는 內容으로 한다.

나. 公演時 司會者는 政治性을 排除하고 相對側을 誹謗·자극하지 않는 原則下에 公演內容과 種目을 紹介한다.

(9) 公演프로그램 交換 및 公演場 事前踏査

가. 公演프로그램은 訪問 7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하도록 한다.

나. 演出上의 構成問題, 裝置轉換問題, 音響·照明·效果問題 등 公演準備에 필요한 事項을 事前點檢하기 위해 赤十字人員 2명과 公演技術人員 3명이 1989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公演場을 事前踏査토록 한다.

(10) 公演時間

120분 정도로 한다.

(11) 身邊安全保障

事前踏査班 및 訪問團의 訪問 7일전에 關係當局은 身邊安全保障聲明을 發表하고 그 文本을 相對側에 手交한다.

(12) 輸送·通信 및 行囊

輸送·通信 및 行囊에 관한 事項은 第1次 交換訪問時의 先例에 따른다.

(13) 記者의 取材活動

招請側은 離散家族의 故鄕訪問·再會相逢·省墓 및 藝術公演에 대한 訪問側 記者들의 取材活動을 保障하고 取材에 필요한 諸般便宜를 提供한다.

(14) 通過場所와 通過節次

第1次 交換訪問時의 先例에 따른다.

(15) 訪問者名單 通報時期

가. 訪問 30일전에 離散家族찾기 依賴書를 相對側에 通報하고 依賴書를 接受한 側은 回報書를 訪問 20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나. 回報書에 따라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 위주로 한 訪問者의 名單을 訪問 15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다. 藝術公演團, 取材記者 및 支援人員의 名單은 訪問 3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16) 故鄕訪問團·藝術公演團·取材記者團·支援人員名單 作成樣式 및 訪問者의 標識·證明書 所持

第1次 交換訪問時의 先例에 따른다.

(17) 滯留日程

訪問 7일전에 滯留日程表를 相對側에 手交하고 日程을 協議·決定한다.

(18) 其 他

가. 訪問團이 相對側 地域을 訪問中에는 相對側의 案內와 秩序에 따르도록 한다.

나. 宿食·輸送·通信 등 訪問團 人員들에 대한 便宜는 招請側에서

提供한다.

다. 招請側은 公演開幕前 訪問側이 公演舞臺에서 事前演習을 實施할 수 있도록 便宜를 提供한다.

라. 公演舞臺裝置의 補助人員 및 一般 照明器具 提供 등 기타 公演에 관련되는 問題는 招請側에서 便宜를 提供한다.

마. 公演프로그램은 公演하는 측이 製作·携帶하여 配布하도록 한다.

以上 南北赤十字會談 再開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에 관한 우리측의 提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우리측의 이 提案을 中心으로 오늘 討議가 進行되어 좋은 結實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北(박영수) : 이제 그쪽 發言에서, 우리가 전번 接觸에서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또 文奎鉉神父 問題에 대해서 提起한 것을 赤十字外的인 問題라고 그러고 그 問題를 提起하는 우리의 진의를 理解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번 接觸에서도 그렇고 이번 接觸에서도 그것이 절대로 赤十字外的인 問題가 아니다.

그건 어떤 意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누이 强調를 했지마는 그것이 人權에 관한 問題고 또 雙方 赤十字 團體들이 지니고 있는 義務의 側面에서 놓고 볼때도 그것은 분명히 赤十字人道主義 問題인 것인 만큼 雙方, 우리도 또 貴側도 包含해서 雙方 赤十字團體가 責任지고 풀어야 할 問題라고 우리는 認定하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問題를 여기에서 提起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70年代 會談때 合意한 雙方 사이에

이룩된 合意事項, 「同胞愛 精神」·「赤十字 人道主義 精神」·「7.4共同聲明의 精神」 여기에 비추어 볼때도 응당 貴側은 이 問題를 解決할 義務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 問題를 提起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權利가 있다, 그런 面에서 이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宋先生이 會談 분위기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立場은 그겁니다. 오늘 基本發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에서 외면하지 말고 응당한 措置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宋先生이 이제 이 問題를 가지고 더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것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接受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심사숙고를 하고 돌아가서 응당한 또 해당한 措置를 취할 것이라고, 또 그런 立場의 表示라든지 그런 立場을 시사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나도 얘기하지 않고 實務的인 問題를 討議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宋先生이 쭉 提起한 實務提案들을 보니까 지난번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지난번 接觸때에는 實務節次案들을 내놓지 않았던 것을 1次訪問團 交換 때 合意되었던 節次問題들을 그대로 낭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달라진 것 없죠? 전번에 내 놓았던 것하고 달라진 것 없죠?

南(宋榮大):달라진 게 있죠.

北(박영수):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그 問題에 대한 立場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南(宋榮大):지난 1次接觸때에 우리側은 本會談 再開問題와 第2次 訪

問團 事業에 관한 基本立場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

北(박영수): 아니, 발언이, 미안하지만 發言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번 提案때와 달라진 것이 뭐 있는가 내 그것만 …….

南(宋榮大): 내가 지금 그것을 說明하는거예요.

北(박영수): 뭐, 어떤 事項들이예요?

南(宋榮大): 지난번에 이 두 事業에 대한 基本立場을 천명하면서 細部事業推進 節次는 先例에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貴側에서는 두 事業을 提議를 하는데 마치 原點에서 出發하는 것과 같은 立場에서 提案을 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가 지난 1次 接觸때 밝힌 基本立場에다 細部推進節次 또 貴側의 1次 接觸때의 提案 이 3者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綜合的 提案으로 내 놓았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內容面에서 보면 아마 冒頭에 發見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貴側이 내놓은 第11次 會談의 날짜를 우리가 受容을 했습니다.

北(박영수): 그 11次 會談날짜 問題는 招請側에서 定하는 날짜니까 원래는, 그건 뭐 새삼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그 이외의 節次 問題는 글쎄 내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次 訪問團 交換때의 節次案들을 내 놓은 것이고 그때의 것들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 訪問團 構成이라든지 來往問題 그 訪問地 問題라든지 또 訪問團·本會談 再開 날짜 問題라든지 이런 問題들에 대해서는 전번과 立場이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한 問題씩 討議해 내려가야지요. 뭐 단번에 다 討議할 수도 없는 問題고, 그래서 …….

南(宋榮大): 좋습니다. 지금 貴側 發言을 보니까 제일 먼저 時期性 問

題, 그 다음에 規模, 訪問地, 對象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北(박영수):우리가 오늘 提起를 한 것도 첫번째로 本會談 再開날짜와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날짜, 이 날짜問題를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南(宋榮大):좋습니다. 우선 저 時期性 問題를 討論을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

北(박영수):예, 그래서 이 問題와 關聯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의 立場은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을 本會談에 앞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立場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 전번 接觸 對話錄을 다시 풀어보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宋先生도 基本的으로 同意한 걸로 나는 認定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表現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 應當한 것이고.

南(宋榮大):(웃으면서) 그게 아니죠.

北(박영수):왜 그러느냐하면 이.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 趣旨 이것을 아까 宋先生이 재음미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오해가 또 잘못 理解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인가 하면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이 흩어진 家族·친척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그 자체에 目的이 있는가? 勿論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은 좋죠, 그것은 否認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흩어진 家族·친척들의 不幸과 苦痛을 폭넓게 또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本會談을 하고있는 마당에서 이 問題는 어디까지나 象徵的으로 進行하는 事業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事業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正確히 理解를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저 원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藝術團·故鄕訪問團을 本會談에 앞세우고, 우선 앞세우는 데 合意를 하고 그 다음에 날짜問題를 副次的으로 討論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南(宋榮大): 지금 우리는 本會談을 앞세우고 訪問團을 그후에 잇달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根本的으로 폭넓게 덜어줄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議題 5個項 事項을 실천에 옮길때만이 可能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本會談을 우선 열어야 됩니다.

貴側도 離散家族들의 不幸을 包括的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本會談을 再開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根本的으로 또는 包括的으로 解決해 주려고 하며는 그 方法은 本會談을 여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本會談의 再開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問題이고 또 離散家族問題를 根本的으로 풀수 있는 方途로 됩니다.

이런점에서 本會談 開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85年 第1次 訪問團 事業에 대한 先例를 참작했습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第1次 訪問團 事業의 실시배경과 過程을 보며

는 第8次會談때 雙方이 이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우리側은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 貴側에서는 藝術團을 交換하자해서 이 두개를 묶어가지고 일단 原則合意를 한다음 實務代表接觸에 넘겨가지고 그자리에서 訪問團事業에 관한 合意를 했고 그 合意事項을 第9次會談에서 確認을 받아가지고 그 事業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를 이룩한 다음에 第11次 會談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確認을 받은 다음에 事業實踐에 옮긴다면 좋지않겠는가.

이것은 결국 이 訪問團 事業하고 本會談이 별개가 아니고 相互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이 相互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離散家族 뿐만 아니라 온 겨레들앞에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人道的인 事業이 전체적으로 本格 稼動되는가 보다하는 인상을, 認識을 주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本會談을 먼저하는게 좋겠다하는 이야기는 이 本會談하고 訪問團 事業, 이 두 事業 着手를 위한 準備期間을 比較檢討한끝에 訪問團보다는 本會談 開催時期를 앞당겨야 하겠다라는 判斷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訪問團事業하고 本會談을 規模面에서 보며는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이 訪問團 規模는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볼때 5~600名의 規模입니다.

여기에 反해서 지금 本會談은 한쪽 代表團이 84名 아닙니까?

이렇게 訪問團의 경우 規模가 크다 보니까 貴側 事情을 모르겠습니다

만, 우리側 事情으로 볼때에는 그들을 위한 宿所準備에 다소 時間이 必要합니다.

또 故鄕訪問團 構成時 相逢家族이 確認된 사람들을 優先的으로 包含시킬 경우에 訪問者 名單 交換에 따른 절대 時間이 所要됩니다.

지금 우리가 提案한 바 같이 訪問 30日前에 訪問豫定者의 名單을 交換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家族들을 찾고 그 結果를 相對側에 알려주고 그 結果를 받은 側에서는 最終 訪問者 名單을 作成을 해서 通報를 해주고 하는 이 節次를 거칠려고 하는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달정도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交換하자는 藝術團問題에 있어서도 公演效果를 좀 높이려하려면 그 準備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 公演과 關聯해서 事前踏査도 하는 節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反해서 本會談 開催問題는 우리가 4年前부터 準備해온 事項입니다.

86年初부터 本會談問題는 우리가 다 準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準備하는데 몇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특히 이번에는 貴側의 平壤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側의 代表團 일행이 그냥 平壤만 들어가서 會談하는 것으로 끝낼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두事業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面에서, 準備面에서 檢討한 끝에 역시 本會談을 좀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貴側에서 訪問團 事業을 앞당기는 理由로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訪問團事業을 하

게되면 本會談 雰圍氣 좋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離散家族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그런데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할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있는 實務代表接觸 成功的으로 타결하게 되면 그 自體가 本會談 雰圍氣 造成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貴側에서 離散家族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주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차례 하셨는데 결국 離散家族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希望을 주는 方法은 무엇이냐?

내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금 本會談이 마지막 타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타결단계에 접어든 本會談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結末을 짓는 모습을 우리 겨레들한테, 離散家族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모두 큰 기쁨과 希望을 줄 수 있는 方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박영수): 예, 나는 本會談에 앞서서 藝術團·故鄕訪問團交換을 먼저 進行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전번 接觸에서 宋先生이 同意한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와서 지난번 接觸 初期立場을 그대로 堅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南(宋榮大): 내가 同意한적 없습니다.

北(박영수): 그건 내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本會談을 藝術團·故鄕訪問團에 앞세우자고 하는거는 내가 보건데는 우리가 누누이 이 問題를 强調했지만 일을 지금 거꾸로 하는거다. 왜그런가? 우리가 藝術團·故鄕訪問團交換을 왜 하자고 했는가하는 趣旨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그 答辯이 될 것 같습니다.

그 解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것처럼 北南赤十字本會談이 85年度에 比較的 成果를 거두면서 進行되어 오다가 中斷이 됐습니다. 中斷이 된 理由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는데 그 中斷된 要因들이 지금 除去되지 않고있다. 이것을 우리가 認定을 해야됩니다.

그때당시나 지금이나 本會談 再開問題와 關聯해서는 雰圍氣上 改善된 것이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雰圍氣가 惡化되고 있는것이 事實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떻게하나 빨리 北南赤十字本會談을 再開하고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을 폭넓고 또 迅速하게 解決해 주기 위해서 本會談을 빨리 열어야 되겠다. 이面에서는 우리立場은 확고하고, 지난 時期에도 그랬지마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本會談을 中斷시킨 이런 要因들이 除去되지 않는 이런 마당에서 本會談을 먼저 선듯 再開해보았자, 지금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첫發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雙方사이에, 우리赤十字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不信이 있단말입니다. 誤解도 있고 그래서 내가 善意를, 相對方의 善意를 善意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本會談을 열어봤댔자 그것이 흩어진 家族·親戚들, 온 겨레의 期待와 念願에 맞게 순조롭게 빨리 進陟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않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束手無策으로 가만 앉아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또 안된다. 빨리 本會談 雰圍氣를 마련하고 本會談을 해야되겠다.

그럼 本會談 雰圍氣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것이 지난 藝術團·故鄕訪問團交換때 交換의 前例를 놓고 보며는 그것을 하니까 확실히 좋았다. 本會談에도 좋고 그때 우리 다같이 本會談해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藝術團·故鄕訪問團 8次會談이 끝난 후에 會談을 하고 그 다음에 마주 앉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만은 事實이거든요?

그런 意味에서 本會談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面에서 놓고 볼때 이 藝術團·故鄕訪問團은 먼저 先行시키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確信을 합니다.

그리고 이 實務代表接觸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이 實務代表接觸이 우리가 初期에 5月 31日 그쪽에 便紙를 보낼때 앞에서 말한 그런 趣旨로 부터 어떻게하나 이 惡化되어 있는 北南關係를 緩和시키고 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을 한번하자。그런 趣旨에서 우리가 實務代表接觸을 提起한 겁니다.

말하자면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을 討議하기 위해서 實務代表接觸을 하자고 提起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거 『2次 訪問團交換問題 뿐만 아니라 本會談問題도 同時에 討論해야 된다』 그런 要求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좋수다, 두 問題다 討論합시다』 이렇게 된겁니다. 經緯를 놓고 볼때도。

그렇다면 이 實務代表接觸에서는 應當 藝術團과 故鄕訪問團問題를 先行시켜야 된다. 本會談에 앞서서 …….

그래서 저는 뭐 누누이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전번 接觸에서도 이애

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事情으로 해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을 반드시 本會談에 先行을 시켜야 된다 이런 立場이고 …….

이제 宋先生 發言할때에도 發言한 가운데 몇가지 問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한달가량의 時限이 必要하고 했는데 準備事業에, 藝術團·故鄕訪問團準備를 하는데 지금 한달 남아있습니다. 한달, 오늘로서 決定을 하면 한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準備를 하면 됩니다.

宋先生말씀한대로 다 解決이 됩니다. 한달의 時限, 한달 具體的으로 이틀 남아있지요, 11月 8日이니까 우리가 …….

그러니까 그런面에서도 問題가 없고 또 公演效果를 높이기 위해서 藝術團準備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勿論 準備를 해야지요 準備안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되는데 …….

藝術公演 한달, 民族傳統歌舞를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달동안 準備를 하면 이것도 된다.

그리고 注意하게는 우리가 時期問題도 考慮를 해야됩니다. 時期問題, 藝術團·故鄕訪問團交換을 하자며는 거기에 故鄕訪問團成員들 가운데는 年齡이 많은 사람들이 包含될 수 있습니다. 늙은이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平壤과 서울을 來往해야 되겠는데 추운 겨울에 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더 차지기 전에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問題는 本會談에 앞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까 宋先生이 전번 接觸에서 이 問題를 앞세우는데 난 同意하는 걸로 認定했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렇게 認定을 했는가 그러면 그때 會談接觸 마지막 段階인데 故鄕訪問

團·藝術團交換問題에 대해서 目的問題 이런걸 이야기 하면서 宋先生이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건 그 目的과 同時에 會談의 雰圍氣를 마련하는데 重要한 目的이 있다 내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宋先生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本會談 雰圍氣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에 있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런 意味가 있다.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한다는데 우리가 會談雰圍氣를 좋게 하자면 물론 第2次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雰圍氣를 좋게 하자면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회담의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서 訪問團 交換해야 된다면 先行시킨다는 것이지 뒤에 온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南(宋榮大):가만히 들어보세요.

北(박영수):가만, 조금더 말씀드리고. 이제 뭐 얘기할 기회는 많으니까. 그리고 本會談을 앞세워야 한다는 論據를 이제 宋先生이 主張을 했는데, 本會談 지금 한두차례면 妥結될 局面에 와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건 希望的이고 또 좋은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 그렇다면 굳이 本會談을 한달후에 여나 한달전에 여나 무슨 差異가 있겠는가.

한두차례면 다 本會談이 妥結돼서 自由來往 넘어가는 판인데 한달 꼭 먼저해야 할 必要가 있겠는가.

한두차례 걸쳐서 妥結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對策의 하나로써 우리

가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을 先行시켜서 이 雰圍氣를 좋게하자 이걸 우리가 提起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宋先生 지금 말씀하는데 비춰봐도 우리 主張이 맞는것 같아요. 이것을 꼭 先行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宋先生도 그걸 認定하고 지금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先行시킨다는 對答을 할려는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南(宋榮大):(웃으면서) 우리 뭐 웃으면서 하니까 분위기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1次接觸때 마치 訪問團事業을 先行시킨데 대하여 同意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速記錄보며는 알겠습니다만 …….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朴先生이 『本會談 雰圍氣 좋게하기 위해서 訪問團事業하자』라고 할때에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며는 『本會談 雰圍氣 좋게하는데 方法이 딱 하나 있소.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 1월달에 貴側에 보낸 離散家族찾기 依賴人名單 4,346名에 대해서 그 結果를 우리한테 알려주며는 그 自體가 本會談 여는데 좋은 雰圍氣를 造成할겁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것 분명히 내 말씀드리고.

지금 貴側에서 現在의 南北關係 雰圍氣로 볼때에 本會談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訪問團事業하자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며는 現在의 雰圍氣가 訪問團 交換은 할 수 있으나 本會談은 再開할 수 없다하는 論理예요. 난 그렇게 안봅니다.

現在 雰圍氣가 …….

北(박영수):중대한 발견했습니다. 宋先生이 …….

南(宋榮大) : 아니, 가만히 계세요. 現在 雰圍氣가 訪問團交換도 할 수 있고 本會談 再開도 할 수 있는 雰圍氣입니다. 어느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 雰圍氣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問題고 또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本會談으로 말하며는 86년 2월달에 貴側에서 중단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재개하자고 여러차례 促求했습니다. 促求하면서 우리는 準備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열리면 바로 이건 할 수 있는거요.

그리고 지금 貴側에서 이 實務代表 接觸 어떻게 해서 열렸느냐, 그 經緯를 죽…… 얘기하면서 訪問團 먼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第2次 訪問團 事業으로 말하며는 우리側에서 第10次會談때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때 貴側에서 뭐라고 했느냐 訪問團事業 그런거 하지말고 本會談 議題討議때 集中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貴側이 지난 5월달에 와서 갑자기 藝術團 및, 第2의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하기 위해서 會談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側에서 어떻게 答을 했느냐. 우리는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이 根本解決의 方法이 本會談再開에 있기때문에 本會談부터 하자라는 內容의 便紙를 貴側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여기서 우리가 第1次 實務接觸을 가졌는데 實務接觸에 나와가지고 우리側에서 이 訪問團事業을 包含시킨 理由는 이겁니다.

우리는 本會談도 해야 되겠고 訪問團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討論해서 今年안에 다 實現시키자.

貴側에서 離散家族을 交換하는데 추운때를 피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돌이켜보며는 85年 10次會談때도 12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本會談 雰圍氣 造成論을 꺼내는데 가장 雰圍氣를 좋게하는 方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實務接觸 成功的으로 妥結시키면 이 自體가 本會談 雰圍氣에 좋은 寄與를 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지금 4,346名 家族生死나 住所를 좀 알려달라 했는데 그중에 一部라도 우선 알려주며는 이 自體가 또한本會談 雰圍氣造成에 크게 寄與할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어떻습니까?

北(박영수):가만, 조금만 계십시요.

내가 아무래도 말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雰圍氣問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벌써 이젠 좋은 雰圍氣속에서 지금 討議가 進行되는데 86年度의 本會談 中斷問題와 關聯해서 宋先生이 우리보고 中斷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린 이런말 하지말자는 겁니다.

이런거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段階에 와서 우리보고 本會談 中斷시켰다, 누가 中斷시켰다, 이런말을 하겠는가. 그런 말을 그걸 이제부터 다시 本會談 中斷이 왜 되었는가 하는거를 캐자는 거요?

南(宋榮大):아니 그것은 아까 朴先生이 이번 實務接觸이 열리게 된 經緯를 이야기하면서 事實과 달리 말을 했기때문에 그런거예요.

北(박영수):분명 얘기를 이렇게 우리보고 中斷시켰다고 하니까 내가하

는 소리가 아닌가.

本會談 雰圍氣問題와 關聯해서 얘기를 하면서 86年度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며는 얼마든지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問題는 대범하게 發言을 안합니다. 留意하십시요.

北(정덕기):접어놓고 우리 진짜문제 協議를 합시다.

南(宋榮大):우리 李代表 얘기를 들어보고.

南(李柄雄):말할 기회가 없어…… 얘기를 한번 할려며는 어떻게 힘이 드는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北(박영수):아니 宋先生이 나한테 發言權을 이제 넘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지 조금씩 가라앉히고 앉아서 하는줄도 알아야 돼요.

南(李柄雄):實務的인 問題를 좀 얘기합시다.

北(박영수): 10次 本會談때 訪問團 交換하자고 할때 우리가 反對했다 그랬는데 反對한 것도 없고 그때 經緯를 캐자면 그때는 本會談이,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 自由來往 5個項 事業實施에 대한 合意書를 내놓는 段階였어요. 本會談 다음날짜도 定해져 있었고 그런 條件에서 그때 우리 雙方 赤十字團體들한테 나선 課業은 뭐였는가 하면 本會談 이제뭐 한두차례면 진짜 結束될 수 있는 段階인데 구태여 추운 겨울에 訪問團交換을 하겠는가.

그런 事業을 안하더라도 한두차례 그 이듬해 봄철에 나가며는 本會談이 妥結돼서 自由來往이 實施될 판인데 뭐 그런데 神經을 쓰지말고 本會談을 우선 우리 잘합시다.

그게 우리 基本趣旨였습니다. 그걸 옳게 理解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宋先生이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추운때 피하자, 우리는 추운때 피하자는 理由가 뭐인가 하면 故鄕訪問團成員가운데 老人들이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 老人들 보고 추운겨울에 왔다갔다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추워지기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訪問團交換을 本會談에 先行시켜서 11月8日에 하자는 거지, 그런데 宋先生은 추운때 피한다고 하면서 85年度 10月달에 本會談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理解가 안돼요.

南(宋榮大):아니예요. 잘 들으셔야지. 85年 12月달에 우리가 10次會談했다 하는 이거예요.

北(박영수):本會談은 겨울이건 뭐이건 相關이 없다 그 말이예요. 뭐 相關있어요?

南(宋榮大):그러니까 이거 한달사이인데 이렇게 합시다. 내가 折衷案을 낼께요.

北(박영수):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接近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問題는 일단 保留시키고 다음問題 討議로 넘어가지요.

南(宋榮大):우리 討論은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매듭을 짓는 意味에서 折衷案을 하나내지요.

이 두 事業의 先後問題에 있어서는 本會談을 먼저하고 잇달아서 訪問團을 交換하는 것으로 하되 날짜問題에 있어서는 貴側이 내놓은 그 날짜를 우리가 尊重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本會談을 11月8日날 하고 訪問團交換은 12月15日부터 하자 그거예요.

北(박영수) :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

南(宋榮大) : 貴側에서 내놓은 날짜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順序는 順理대로 하자.

南(李柄雄) : 그쪽에서 시비를 하니까, 저 이걸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아서 복잡한데 아까 우리 宋代表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訪問團은 사실 準備가 좀 必要하다 이겁니다. 實務的으로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

北(김광수) : 한달 필요하데요, 한달 …….

南(李柄雄) : 한달가지고는 안되고, 名單도 作成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藝術團이 그래도 갈려면 좀 보기좋게 準備를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事實上 時間이 좀 必要하고, 그다음에 本會談은 그렇게 큰 準備가 없어도 되는거니까 이걸 먼저하자. 그런데 우리가 基本的인 것은 年內에 지금 다하자고 날짜가 나왔거든요 ?

年內에 하자고 날짜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順序에 좀 바꿔서 하며는 서로가 좋은 雰圍氣속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雰圍氣問題는 이렇습니다. 지금 本會談하기 위해서 故訪團 먼저 하며는 本會談 雰圍氣가 좋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本會談하고 그뒤에 故訪團하며는 故訪團雰圍氣도 좋아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雰圍氣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가 어느쪽이든지 雰圍氣 서로 좋게 하자는 것도 같은 意見이고 날짜問題, 年內에 하자는 것도 같은데 여러가지로 準備하는 節次가 아까 얘기한대로 84名과 500名에 대한 그런 準備節次가 있으니 당장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調整하자는 거예요.

北(박영수):柄雄先生! 내가 보건대는 柄雄先生이 뭔가 잘못 理解하는것 같아요. 왠가하며는 本會談을 먼저해서 故鄕訪問團 雰圍氣를 좋게 하자 이런거, 이게 지금 問題가 아니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宋先生 거 認定해요? 全部 잘못 생각한다는거 認定해요? 宋先生 일관하게 强調한게 물론 나도 强調를 했는데 本會談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잘해서 自由來往시키는게 基本이예요. 우린, 그건 누구도 그건 …….

그런데 무슨 故鄕訪問團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本會談을 먼저 한다는건 이건 말도 안돼요. 그건 그저 애당초 그런말은 꺼내지도 말고.

南(宋榮大):자 朴先生, 아까 내가 折衷案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答을 주시고 …….

北(박영수):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그러게 지금 答辯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바빠서 그래. 本會談은 큰 準備가 없어도 된다 지금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北(김광수):本會談은 한달 準備하는거지요.

北(박영수):本會談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됩니다.

南(宋榮大):4年동안 準備를 해왔는데 뭐.

北(박영수):그래서 그런말은 필요없고 제가 이미 折衷案을 냈는데 宋先生! 뭐 本會談을 12月8日로 하고 訪問團을 12月15日로 한다는 건 이걸 어떻게 正確하게 비유할 말이 생각안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달라진게 없어요.

그쪽날짜를 어떻게 바꿨다고 말하겠는가. 이건 根本問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實務的으로도 큰 差異가 없는거예요.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先行시킨다는 意味에서 같습니다.

本會談을 뒤로 미룬다는 意味에서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宋先生이 전번 會談錄에서 베껴온건데 우리 녹음기하고 그쪽 녹음기하고 서로 다르게 內容이 안들어가 있겠지요? 같은 마이크로 들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宋先生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하자면 물론 第2次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南(宋榮大):아니 그런데 왜 뒷말을 뺐어요?

北(박영수):뒷말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마저 읽지요. 또 雰圍氣를 좋게하자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그 回報書도 좀 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消息, 調査回報書 問題는 일단 좀 눌러놓고 지금 論議되는 問題가 이 問題니까 이렇게 놓고 보며는 藝術團·故鄕訪問團을 先行시키자고 전번에 말해놓고 이제와서 또 아니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뭐 立場上 차이가 있으니까 이 問題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같은말만 나올것 같은데 그래서 이 問題 討議는 일단 保留시키고 좀 뒤로 미룹시다. 그렇게 하고 다음문제…….

南(宋榮大):우리 저 訪問團問題, 規模問題 얘기를 좀 합시다.

北(박영수):訪問團 規模問題를 좀 이야기합시다.

南(宋榮大):이제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北(박영수):訪問團 規模는…….

南(宋榮大):朴先生! 그쪽에서 쭉 이야기했으니까 좀 쉬세요. 숨도 찬것 같은데 좀 쉬시고 내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訪問團規模 構成을 300 對 50, 그러니까 故鄕訪問團 人員 300名, 藝術團人員 50名, 300 對 50으로 差等을 두어서 提起한 理由가 몇가지 있

습니다.

첫째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思와 念願을 反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5年 第1次 訪問團 交換에 관한 合意書가 發表된 이후에 우리側 대다수 離散家族이나 國民들이 지지하고 歡迎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산가족들사이에서는 故鄕訪問團 規模가 50名으로 合意된데 대해서 이것은 좀 적다하는 섭섭한 反應을 보인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赤十字社가 이들을 만나가지고 說明을 했었어요.

1次 訪問團事業은 南北사이에 처음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規模가 좀 적더라도 理解를 해 주십시요. 만약 다음번에 이와같은 事業을 하게되며는 그때는 우리가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多幸히도 그분들이 理解를 해주어서 우리가 85年에는 事業을 成功的으로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은 狀況이 전혀 다릅니다. 貴側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나라사이에서도 서로 門을 열고 交流·協力하는 趨勢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海外에 있는 우리 同胞들도 지금 南과 北을 訪問해서 故鄕을 찾고 血肉을 만나는 趨勢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狀況속에서 지금 나이가 많은 離散家族들이 한분두분 世上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側 이산가족들은 이제는 南北사이에서도 人道的인 門을 열어야 된다. 그 門을 열 경우에 활짝 열어야 한다는 뜻에서 南北사이에 2次 訪問團事業을 實施하게 되며는 방문단 數를 늘려야 된다.

특히 訪問團事業은 故鄕訪問團 위주로 해야 한다는 要求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대부분은 南北사이에 藝術團 交換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다만 推進方法面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方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며는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은 그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故鄕訪問團 事業을 赤十字 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實施하고 藝術團 交換은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見解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事業을 分離해서 실시하는 것이 正道인데 굳이 赤十字事業 次元에서 藝術團을 交流하려고 한다며는 그 規模는 小規模로 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무슨 觀念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離散家族大會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17,000여명에 달하는 많은 離散家族들이 모였습니다. 이 분들이 이 자리에서 두가지 事項을 決議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을 할 경우 故鄕訪問團 위주로 編成하는 것입니다. 또 省墓도 直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要求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우리 적십자사가 이들에게 約束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2次事業을 하는데 그 方向으로 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가 고향방문단하고 예술단하고 差異를 두는 理由는 이번 第2次 交換事業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側이 事業을 하자는 理由, 趣旨, 目的을 한마디로 말하면 離

散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點에 관해서는 貴側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事業을 離散家族들을 위해서 하자고 한다며는 자연히 이 事業의 中心은 故鄕訪問團이 되어야 합니다.

事業의 中心을 故鄕訪問團으로 잡게 되며는 그 數는 藝術團 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의 基本趣旨요, 本質입니다. 이것을 좀 살리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우리가 고향방문단하고 예술단의 差異를 둔 것은 貴側의 立場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가급적이며는 藝術團을 조금 다른 次元에서 하고 故鄕訪問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貴側에서 지난 5月31日字 便紙에서부터 藝術團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相對側에서 提議한 것을 正面 拒否하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일단 受容한 것입니다. 수용을 하되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離散家族들이나 우리 國民들의 意思·念願을 考慮해가지고 數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藝術團 問題가 지난 85年에 提起되서 實施된 背景을 돌이켜 보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次會談때에 貴側에서 이 問題를 먼저 提起했습니다.

그 當時의 提議趣旨가 무엇이었느냐 하며는 光復 40周年을 紀念하기 위해서 이 藝術團을 交換하자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貴側에서 提議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1回性 事業으로 提議를 했고 그해 實施로 因해서 事實上 藝術團 交換問題는 끝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貴側에서 5月 31日 便紙에서 또다시 2次 藝術團·訪問團 事業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相對側에서 제기한거 우리가 정면 拒否하기가 어렵다, 일단 이 사업을 實施할려고 그러면 相對側 意思도 尊重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받아 들였고 그 結果 일단 數字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離散家族들의 意思·念願을 考慮해서 50名規模가 適正線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지금 나는 우리側의 提案이 지금 이 現狀況的인 要求에 부합되는 適正規模라고 생각됩니다.

北(박영수):그 訪問團 規模問題에서 故鄕訪問團을 그쪽에서 300名 하고 藝術團을 50名으로 하자고 지금 이렇게 제기하는데 그걸 제기를 해놓고 宋先生이 그걸 合理化하는 發言을 이제 相當히 길게 했는데, 아무리 길게해도 내가 보건데는 거기에 그걸 合理化할 만한 똑똑한 論旨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것 같구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85년도 訪問團 交換때보다 藝術團·故鄕訪問團 規模를 늘리는거 이거는 우리가 發展的 견지에서 놓고 볼때 이거는 自然스러운 일이다.

85年度에 訪問團을 交換한 以後에 벌써 만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關聯한 우리 겨레의 要求나 특히는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는 높아졌습니다.

뭐이 높아졌는가. 8.15解放 마흔돌을 계기로 할 때에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하는 事業이니까 50名, 50名 아주 小範圍에서 理解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조금더 통이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意見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事業을 하는데 發展的으로 해나가야지 85年 4년전에 하

던것을 이제와서 踏襲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藝術團 交換과 關聯해서는 어디까지나 藝術人 當事者들의 意思를 考慮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고향방문단 성원들,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藝術團 成員, 藝術人들의 意思도 考慮해야 합니다.

우리가 8.15解放 40돌을 계기로 進行할 때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을 同時에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서로 認定을 했기 때문에 이걸 同時에 交換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2次 訪問團 交換을 할 때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의사만 고려해주고 예술인들의 意思는 고려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不公平하다.

지금 藝術人들은 뭐이라고 하는가? 예술공연이라는게 뭐 南北間에 이틀에 한번 提起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進行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어렵게 오래간만에 한번씩 진행되는건데 그렇다면 北에 있는 藝術人들은 北의 자근네가 到達한 水準, 最高水準을 가지고 나가서 南쪽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단 말입니다.

뭐 그런 面에서야 南쪽 藝術人들도 마찬가지겠지요.

50名가지고 이걸 解決할 수가 있는가?

이건 도대체 不可能하거든요? 85年度때 그저 다 아시겠는데 藝術團公演 두시간 했습니다.

50名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舞臺裝置하는 사람, 뭐 指揮하는 사람, 照明하는 사람 뭐 다 빼고 나니까 배우는 불과 몇이 안되었

거든요?

그래서 한 배우가 세종목 지어는 네종목씩 出演했습니다.

우리가 藝術人들한테 이렇게 要求하는것 自體가 무리하단 말입니다.

우리 藝術人들은 그래서 지금 서울에 다시한번 나간다면, 나가게 된 이상에는 한번 우리가 準備한 藝術, 우리 到達한 藝術 水準을 이걸 한번 다 充分히 보여주자.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300名은 되어야 되겠다는데 그들의 一致한 要求입니다.

우리는 이런 藝術人들의 意見도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意思와 같이 考慮해 주어야 된다 이거고, 다음으로 우리는 貴側에서 지금 말하는 과정에 우리는 예술단만 重視하고 故鄕訪問團은 차요시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다 重視하고 있고 이건 다 同時에 解決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故鄕訪問團 規模도 300名이고 藝術團도 300名입니다.

故鄕訪問團 交換이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血肉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함께 특히는 상봉에 대한 希望을 안겨주는데 必要한 것이라면, 藝術團은 또 어떻게 되는가, 北南 사이에 和合과 團合을 도모하면서 同時에 故鄕訪問團 성원들이 家族·親戚들과 좋은 雰圍氣속에서 기쁘게 만날수 있도록 하는데도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事業을 같이 다 重視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宋先生 얘기하는 과정에 예술단은 藝術交流의 次元에서 해야되고 訪問團 交換만 人道的 次元에서 해야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85年度에 이 問題에 대해서 明白히 合意를 하지 않았습니까?

赤十字 總裁가, 그때 85年度에 會談할 때 적십자 총재가 藝術團을 데리고 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赤十字 總裁가 어떻게 흩어진 家族·親戚들 데리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同時에 다하자, 이 同時에 다 하는 것이 또 必要하다 이렇게 우리가 合意돼서 85년도에 이왕 成事시킨거고 이제와서 藝術團이, 故鄕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은 從이다, 뭐 이 말을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85年度에 이 자리에 마주 앉아서 무려 장장 합하면 여러시간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말고 같이하자 같이, 두가지 다 重視하는 意味에서 같이하자 우리 主張은 이겁니다.

그리고 藝術團 交換이 提起된 背景을 얘기하면서 8.15 解放 40돌이다. 이거 우린 否認안합니다.

8.15 解放 40돌을 계기로 해서 그 무엇인가 우리 赤十字가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希望을 줄 수 있는 象徵的인 事業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藝術團도 제기한 거고 또 雙方 合意에 의해서 故鄕訪問團을 같이 交換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2次 藝術團·故鄕訪問團 제기할 때 8.15解放 44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便紙 여러차례 그쪽에 갔으니까.

8.15 解放 44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월 31날 提起되었을때 우리가 마주 앉았으면야 되지요.

8月달에도 되지요. 그러나 그게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열린 이상 이제도 그 계기를 8.15 44돌로 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

다. 8.15解放 40돌을 계기로 交換하자 그래놓고 우리가 9월달에 交換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雙方이 어떻게 어디에다 계기를 맞추는가 하는 것은 雙方이 합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납득시키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이걸 계기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44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만큼 귀에 못이 배기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싹 말안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끝으로 離散家族들에게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 故鄕訪問團의 基本이자 目的이고 趣旨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問題도 그쪽에서 理解를 바로 가질 必要가 있습니다. 故鄕訪問團 交換하는 것이 그들에게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의 基本으로 되는데 어떻게 50名 交換하고 300名 交換해서 다들어 줍니까? 물론 그 사람들 한테야 덜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全體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赤十字本會談이 열렸다가 자꾸 中斷되고 迂餘曲折을 겪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아 생전에 내 血肉을 한번 만나보겠는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疑懼心을 갖고 確信을 못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象徵的인 事業으로 이 訪問團 事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보다 더 重要한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몇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보다는 모든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血肉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는 것이 重要한 目的입니다. 바로 모든 離散家族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問題는 訪問團 交換式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1千萬이라고 하는데…… 한번에 300

名씩해서 100年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問題는 本會談을 해야 그 問題는 解決된다. 本會談을 해서 自由往來 實現시켜줘야 흩어진 家族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지 訪問團 交換해서는 그 問題 절대로 解決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의 趣旨를 바로 理解하고 그런 意味에서 그에 대한 認識을 옳게 가지는데 基礎해서 이 訪問團事業을 하자. 그러자면 訪問團 交換에서 어느것을 차요시하고 어느것을 重視하지 말자.

우리가 訪問團을 차요시하면 그쪽에서 좋겠습니까? 雙方會談인데 두 雙方이 提起한 것을 다 尊重하는 意味에서 또 그것이 妥當한 以上에는 合理的으로 또 同數로 하는 것이 옳지요.

南(宋榮大): 말씀다했습니까?

南(李柄雄): 그 本會談問題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本會談만 한두번 열리면 自由往來가 다 되고 어려운 問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얘기할 것 없이 우리 立場으로서는 이 다음 本會談이 平壤에서 열 차례인데 그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例를 들어서 우리쪽에서 招請할 차례인데 우리가 안한다며는 이것이 問題가 되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故鄕訪問團·藝術團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實現을 시켜서 좋은 雰圍氣속에서 우선 示範事業이라도 하자. 이래서 1次에 좋은 成果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立場은 지난번 150名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실 故鄕訪問團 人員을 300名으로 더 發展的으로 人員을 많이 늘렸는데 이 藝術團 問題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藝術公演이 南北間에 더 많은 人員이 50名, 300名이 아니라 1,000名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公演을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問題는 이번에 이 일은 어떻게 돼냐면 우리가 出發이 赤十字事業에서 부터 出發되는 것이고 또 赤十字事業이라고 하는 것이 可能하면 人間의 苦痛을 덜어주는 問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일은 離散家族에 關聯된 問題다. 그렇다면 우선 藝術團問題보다는 故鄕訪問團의 問題가 우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50名보다는 더 發展的으로 300名으로 했고, 이 藝術團問題는 아까 宋代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機會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 問題는 우리 赤十字가 서로 勸告를 해서라도 文化藝術交流가 되도록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50명 한것도 상당히 成果가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人員數에 있어서 이 問題는 지난번 정도에서 하고 故鄕訪問團 人員은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立場에 여기 다른 複線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理解를 하셔서 300名 : 50名 이렇게 하며는 좋은 成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北(김광수) :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를 考慮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要求를 考慮해서 貴側에서 故鄕訪問團 人員數를 提起한 것이 300名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놓은 案이 藝術團 300名, 故鄕訪問團 50名으로 提起했다면 貴側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提起한 故鄕訪問團 人員數도 300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側이 내놓은 案이나 우리가 내놓은 案이 같습니다. 故鄕訪問團 人員數를

놓고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意思와 念願에 관한 問題는 見解가 一致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藝術團 人員數를 50名으로 하자고 貴側이 그랬는데 여기에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300名도 좋고 1,000名도 좋겠다고 했는데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藝術團 人員數를 왜 많이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團長이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添附해서 몇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藝術團 人員을 늘리자고 한 重要한 理由의 하나가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信心을 주자는데 있습니다. 이 赤十字會談의 本會談이 進行된지도 滿 17年이 지났습니다. 豫備會談까지 합치면 18年이 지났습니다.

이 18年동안이나 지나온 이런 過程에 제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失望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信心을 주기 위해서 象徵的으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는 目的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北과 南사이의 雰圍氣를 더욱 좋게하고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도 寄與하게끔 하자. 이런 目的에서 또 우리 本會談이 좋은 結實을 얻을 수 있게 雰圍氣를 造成하자는 意味에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 이렇게 提議했습니다.

趣旨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趣旨에 맞게 하려면 50名 가지고 交換해야 얼마나 問題를 解決하겠습니까? 이 交換하는 目的에 맞게끔 하자면 그래도 통이크게 解決해야 그 問題를 우리가 交換하는 目的을 達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目的을 達成하려면 目的을 達

成할 수 있게끔 事業이 組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北半部에서 지난 13次 祝典때는 70,000名이 公演을 進行했습니다. 또 우리 北半部에는 5,000名의 綜合公演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00名이라든가 5,000名 交換으로 하자 이렇게는 提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00名은 交換해야 이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는 趣旨를 達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交換하지 못한다 하며는 50名 가지고 이런 目的 達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柄雄先生이 300名해도 좋고 1,000名해도 좋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는 貴側이 7.7宣言이라든가 最近의 民族共同體方案이라든가에서 交流를 積極的으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點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赤十字人들이 藝術團을 交換해서 家族·親戚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을 推進하자. 이러한 意味에서 交換하는 藝術團을 300名으로 交換하자는데 거기에서 못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南(李柄雄):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交流를 많이 한다는 次元에서 藝術團 1,000名도 좋아요. 그런데 이번의 이 事業 自體는 故鄕訪問團·離散家族에 關聯된 問題니까.

여기서는 象徵的인 人員數로 하고 그것은 兩側機關이 서로가 文化·藝術團體에 建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交流가 되고 公演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 事業 自體의 目的에 맞게 人員數를 調整하면 좋겠다 이거지요.

南(宋榮大):저, 朴선생님! 會談을 조금더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討議를

조금 速度를 빨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規模・構成問題 가지고 오랜시간에 걸쳐서 討論을 했는데, 내가 느낀 바로는 지금 貴側이 藝術團을 交換하려고 하는 그 目的이 南北間의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南北間의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한다며는 赤十字事業 次元보다는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더 適合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할 경우에는 規模도 더 擴大를 하고 內容도 다채롭게 하고 또 期間도 늘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文化交流次元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赤十字事業次元, 특히 이번에 訪問團事業과 關聯해서 볼때는 그 規模를 늘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또하나 지금 貴側에서 이번 2次訪問團事業에 藝術團을 包含하는 理由로써 光復 44周年을 紀念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光復45周年, 46周年, 47周年이 올때 그때마다 이 赤十字訪問團事業과 관련해서 藝術團을 交換하자고 하는 건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藝術團을 交換하게 되며는 相逢家族들은 祝賀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저 相逢家族들을 祝賀해 준다고 하는것은 事實上 동네사람들이, 故鄕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祝賀해 주는것이 그게 제일 자연스런 이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貴側에서 자꾸 이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의 同數概念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同數概念이라고 하는게 어떤 그 對比되는 內容의 性格이 같을때 適用되는 原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南北사이의 宗教人 交流問題가 많이 提起되고 있는데 雙方間의 宗教人 規模를 갖다가 100名, 100名 同數比率로 한다. 또 南北 사이에 言論人 交流를 하면서 規模를 100名, 100名 同數比率로 한다. 이 때는 貴側이 말하는 同數原則이 適用이 됩니다.

왜? 이것은 같은 宗教人끼리이기 때문에, 같은 言論人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對比되는 內容의 性格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同數概念이 適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討論하고 있는 이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은 性格이 다릅니다.

이 性格이 다른 양자를 갖다가 同一線上에 올려놓고 같은 規模로 해야된다. 똑같이 해야된다 라고 하는것은 좀 事理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論理를 前提한다고 하며는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貴側의 論理대로 故訪團數를 1,000名으로 할 경우에 …….

北(박영수) : 10,000名이라고 그러죠 뭐! (一同웃음)

南(宋榮大) : 10,000名으로 할 경우에 藝術團도 10,000名이 따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그 이치가 맞겠어요? 누가 밖에서 들으면 아마 웃을 겁니다…….

北(박영수) : (웃으면서)아니, 내가 대답할 準備가 다 되있으니까 빨리 거 發言이나 끝내시오. 내가 대답을 다 하지…….

南(宋榮大) : 그래서 同數概念이라는 것도 서로 比較하는 內容의 性格이 같을때 適用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構成問題는 이정도면 雙方의 意見이 어느정도 充分히 開陳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問題, 訪問地 問題를 조금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北(박영수): 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며는 너무나 명백한 問題이니까, 그저 저쪽에서 쉽게 同意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이 問題도 합의가 잘 안되느만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藝術團問題는 자꾸 이거 南北交流次元이다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그쪽에서 앞으로 北南사이에 交流가 進行될 때 응당 할 겝니다. 우리가 뭐 하지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85年度에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동시에 交換하기로 合意를 하고, 實現시킨 좋은 前例가 있다. 금년도에 우리가 2次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하자고 제기했을 때 귀측에서 거기에 同意해 나온 이상에는 이제와서 뭐 藝術團은 원래 저쪽에서 해야 될 건데, 뭐 이런 말은 뭣 때문에 합니까 도대체? 다 同意해 놓고 나와서 이제와서 자꾸 그런말을 왜 해요? 不必要하지 않아요? 이거…….

그 問題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내 얘기를 하고, 더 얘기할 수 있지마는 不必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8.15해방 마흔여섯돌, 마흔다섯돌, 마흔일곱돌 계속하자는 건가, 이번에 혼자할 수 있어요? 혼자? 둘이 마주 앉아서 討論해서 하는거지, 그때 가서 합의되면 하는거고 合意안되면 못하는 거죠. 이번엔 合意됐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討論하는거 아녜요! 이런거 뭐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하면서(一同웃음)

南(宋榮大): (웃으면서) 그저, 물어보는거예요.

北(박영수): 뭐 每해 하는가, 어쩌는가. 必要없어요, 그런 얘기는 必要없는

얘기란 말이요. 會議進行에 必要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不必要하고…….

當 藝術團 交換의 目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民族和解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85년도 이 藝術團 같이 交換할 때는 訪問團 成員들이 만나는 걸 가서 축하도 해주고…….

보시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訪問團 成員들이 40년만에 만나서 옆에 끼고, 앉아서 藝術公演까지 보면서, 기분좋게, 사람이 아무래도 藝術公演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건데, 왜 그게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면이 있다는거를 이렇게 거두절미하면서 얘기할 必要도 없는거고…….

옆에 동네사람들이 祝賀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뭐 누가 부인하지 않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藝術團 交換도 그런 意義가 있는거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거두절미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자꾸 얘기를 더 끄집어 내서 할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고…….

同數原則, 同數原則에 대비되는 性格에 한해서 同數原則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 藝術團·故鄕訪問團을 우리가 85年度에도 어떻게 實現시켰는가. 赤十字藝術團·故鄕訪問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對比가 되겠지요. 적십자일에 봉사하는 사람, 적십자 사업에 기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면 일없겠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 예술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리고 10,000명 할때 이것도 하겠는가 하는데, 10,000명이라고 할때

라는거는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을것 같다, 앞으로 나는. 왜 그러냐 하면 10,000명이 왔다갔다 할 때에는 自由來往입니다. 이거는 방문단이 아니에요, 명백히…….

우리는 지금 自由來往이 되지 않은 條件에서 방문단을 소규모로 교환하는 이때에 예술단도 동시에 하는 거지, 앞으로 그런 問題는 제기안될겁니다. 일만명 할 때는 방문단 일만명 토론할 때가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것 같지 않아요, 그런 訪問團도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고…….

그래서 자꾸 그 問題를 좋게 해결하려는 立場인게 아니라 뭘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感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습니까? 이제는 방문단문제, 규모문제, 아까 송선생도 얘기했지만, 뭐 서로 相對方에 의도를, 의사를 충분히 이젠 뭐 알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 토의를 그저 이것으로써…….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야 되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서로 意見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지금 時間도 많이 갔고…….

南(宋榮大):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時間은 많이 갔습니다마는…….

北(박영수): 아, 잠깐 내가 말씀을 마저 드린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요.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뭐 오늘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오늘 接觸은 이만하고 다음번 接觸에 나와서 좀 더 좋은 案들을 가지고 나와서 討論을 급속도로 진전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 내생각은 이렇습니다.

南(宋榮大): 지금 우리가 年內에 두 事業을 다 實現하자고 하는 目標를 가지고 會談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지금 2시간 넘긴 했습니다만, 이 時期問題·構成問題는 어느정도 쌍방이 지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서

로서로 立場이 개진됐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訪問地 問題가 아직 討論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訪問地問題까지 討論을 한 다음에 오늘 接觸을 끝내고 또 다음에 會談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討議해야 될 問題가, 訪問地問題가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藝術公演團의 內容問題도 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왕 다 못할 바에는 우리가 대체로 지금까지 이자리에 모여서 會談을 해올때 대체로 그저 한두어시간씩 하곤 했고…….

이번에 오늘 2時間 동안에 討議를 걸쳐서 相對方의 의사를 충분히 서로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나올때는 서로 좋은 案들을 가지고 나와서 討論하는게 어떤가? 그런생각입니다.

南(李峻熙): 원래 各 項目마다 빨리 意見을 내놓고 討議해야 接近이 빠를텐데, 지금 2가지 問題밖에 意見交換이 안됐는데…….

北(정덕기):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가 問題討議에 취지상 差異가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本會談이 잘 되도록 분위기를 造成하고,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貴側에서는 주로는 흩어진 家族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면한 고통을 풀어주는데 意義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藝術團 故鄕訪問團은 時期問題에서도 그렇고, 規模問題에서도 그렇고 어딘가 뭐 호상성이 잘 맞지 않는 이런 感이 있습니다. 對方의 意見을 좀…….

南(宋榮大):오늘 저, 마무리 짓는 것 同意하는데 마무리 짓기전에 한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늘 지금 밖에 貴側記者들이 우리側 記者들을 만나가지고 貴側에서 提起한 바 있는 民族統一協商會議 제의내용이 담긴 편지를 갖다가 配布를 하고 있습니다.

또 第44次 世界聖體大會 앞으로 또 유인물을 지금 配布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난 目的이 人道主義問題 解決하기 위해서 만났고, 또 여기온 記者들도 人道主義的인 事業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本質에서 벗어난 일은 안했으면 오히려 분위기조성에 좋겠다하는걸 말씀드립니다.

北(김광수):우리자체가 지금 人道主義 事業을 討論하고 있지 記者들 끼리 自由롭게 하는 거야 뭐 막을거 있습니까?

記者들도 赤十字가 統制합니까?

南(李峻熙):記者도 人道的인 問題 取材하러 오며는 正直하게 取材를 해야지 밖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쓸데없는짓 않하는게 좋지요.

南(宋榮大):여기온 取材目的이, 그러니까 내가 協助要請하는 거에요. 우리 분위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런일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南(李峻熙):아, 분위기 좋기 위해서 하는건데 꼭 그렇게 할께 뭐 있어요? 그래, 김광수선생!

南(宋榮大):자, 그럼 우리 다음 날짜를 정합시다.

北(박영수):記者들은 記者들에게 맡겨야지 記者들의 活動內容까지 우리가 統制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번 接觸날짜는, 지금까지 1次·2次 接觸날

짜는 송선생이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다 거기에 거저 하루도 差異안나고 同意를 주었거든요. 3次接觸날짜는 내가 부르겠는데 그대로 同意가 나오리라고(一同웃음) 기대하면서, 내가 생각했든게 10月 16日…….

南(宋榮大):그게 무슨 曜日이예요?

北(박영수):月曜日인데 그저 그날로 합시다.

南(宋榮大):月曜日날?

北(박영수):그렇게 정한 취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17日날 해도 좋겠는데 이 中監委會議室이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달라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 以後로 가는 것은 다른 問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0月 16日로 거저 약속합시다.

南(李柄雄):우리는 日曜日날 내려오는게 미안하죠. 예, 거 日曜日날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北(박영수):아! 일없어요. 뭐 고통을 덜어주는 問題에 있어야 나는 금년도에 금강산을 휴식가는 것도 다 取消했는데 뭐.

南(李柄雄):우린 늘 그쪽을 걱정을 하거든요.

南(宋榮大):저, 그 다음날 17日날 하는게 어떻겠어요?

北(박영수): 16日이 글쎄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날짜라 그말이요.

南(宋榮大): 17日이?

北(박영수):예, 그래서 내 그걸 討論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16日로 합시다.

南(宋榮大):그렇게 합시다.

北(박영수):예.

南(李柄雄):金先生! 가서 研究를 좀 많이 하십시요. 뭐 우리案에 同意하면 다 될건데 뭘 오늘 안하려는지…….

南(李峻熙):새로운 案이 다음에 折衷을 해가지고 서로 案을 좀 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北(박영수):돌아가며는 우리가 重要한 問題들을 提起했으니까 그대로 좀 잘하십시요.

南(宋榮大):자 硏究를 좀 많이해서 나오십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北(박영수):수고하셨습니다.

南(李峻熙):자, 수고하셨습니다.

北(정덕기):수고하셨습니다.

南(李柄雄):오늘 수고하셨습니다.

北(김광수):수고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表團 記者會見

〈代表團　記者會見〉

*日時：1989. 10. 6（金）　13:20～13:45

*場所：板門店　우리側地域「平和의 집」

*發表 및 答辯：宋榮大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實務接觸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의 再開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問題를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間의 두번째 接觸이 오늘 午前 10時부터 12時 23分까지 2時間 23分間에 걸쳐서 이곳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非公開裡에 進行되었습니다.

오늘 接觸에서 우리側은 中斷된 本會談을 再開하여 議題 5個項을 一括妥結, 實踐에 옮기는 것이 離散家族 全體의 不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解決해 주는 길임을 强調를 하고 第11次 本會談의 조속한 再開를 促求하였습니다.

또한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問題에 대해서도 우리側은 訪問團交換事業의 根本趣旨가 보다많은 離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는 데 있으므로 故鄕訪問團 問題는 그 規模나 訪問地 面에서 藝術公演團과는 달리 생각하고 實踐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合理的임을 强調하였습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訪問團의 構成 및 規模나 交換時期 및 方法 등 主要 問題에서 부터 身邊安全保障問題, 輸送·通信·便宜提供問題 등 細部事項에 이르기 까지 訪問團 交換에 따른 상세한 提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協議해 나갈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北韓側은 첫發言의 冒頭에서부터 文益煥牧師, 林秀卿孃, 文奎鉉神父 問題를 提起하고, 이 問題가 人道的 次元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라고 强辯하였습니다.

北韓側은 이들에 대한 釋放을 위해 大韓赤十字社가 應當한 措置를 취하라고 繼續 要求함으로써 實務接觸에 대한 北側의 眞意를 疑心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會談을 妥結시키려는 一念에서 北側 主張에 대한 論爭을 自制하고 實質討議에 들어가는 方向으로 會談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우리側의 努力으로 實務問題 討議에 들어가서 訪問團의 交換時期問題와 構成問題를 討議하였습니다마는 雙方의 意見이 對立되어서 意見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訪問團 交換時期問題와 關聯하여 우리側은 本會談을 먼저 열고 이어서 「訪問團」을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을 表明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離散家族의 不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이 本會談再開에 있으므로 最短時日內에 本會談부터 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本會談과 「訪問團」事業이라고 하는 두개의 事業着手를 위한 準備期間面에서 本會談은 당장 開催할 수 있는 反面에 「訪問團」事業은 보다 많은 準備期間이 必要하다는 점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訪問團 構成問題에 있어서 우리側은 故訪團 300名, 藝術團 50名으로 構成할 것을 强調했습니다.

이것은 離散家族들이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과 關聯해서 藝術團보다는 「故鄕訪問團」中心으로 構成되기를 바라고 있는 現實을 우리 赤十字社가 留念을 했고 또 藝術團은 그 性格上 南北 文化交流 次元에서 推進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故鄕訪問團은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 推進하고 藝術團은 南北 文化交流 次元에서 本格的으로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藝術團問題를 赤十字 人道主義事業에 包含시켜 推進한다고 하면 그 規模는 小規模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見이기 때문에 이 點을 우리가 考慮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北側은 現狀況이 本會談을 열 雰圍氣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雰圍氣 造成을 위해서 訪問團을 먼저 交換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規模에 있어서는 藝術人들의 要求를 考慮하여 「故訪團」과 藝術團의 數를 300名, 300名 同數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 接觸은 次期 第3次 接觸을 오는 10月16日 午前 10時 이곳에서 다시 갖기로 合意했을 뿐 별다른 成果없이 끝났습니다.

以上이 오늘 會談에 대한 發表內容이 되겠습니다.

質問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2. 質疑·應答

質問: 北側에서 앞서서 北側 團長이 한 記者會見에서 거의 지금 宋首席代表께서 거의 大同小異하게 狀況說明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部

分에서 評價를 하는 過程에서 『合意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成果는 없지 않았다』라고 評價를 했는데, 지금 宋先生께서는 『별다른 成果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合意된 것은 없지만 第3次 會談에 대한 展望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第1次會談 때는 文益煥牧師·林秀卿孃 등 會談外的 問題를 提起하는 바람에 實質討議를 전혀 못한 狀態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第2次 會談에서 冒頭에 北側이 역시 文益煥·林秀卿孃 問題를 擧論하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實質討議로 誘導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訪問團」의 時期問題, 本會談 開催時期問題하고 또 構成問題 이 두가지를 討論을 했습니다.

오늘 討論한 이 두가지 以外에 앞으로 우리가 討議해야될 問題들이 몇가지 더 남았습니다.

例컨대 訪問地問題, 訪問團 가운데 故鄕訪問團의 構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構成問題가 있고, 또 藝術團과 關聯된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第3次 會談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問題를 中心으로 討論을 繼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展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北側이 文益煥·林秀卿孃등 會談外的 問題를 계속 擧論을 하게 되면 事實上 우리가 討論하는데, 會談을 進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北側이 이와같은 會談外的 問題를 더

以上 擧論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雙方 모두가 다 本會談 再開와 第2次 「訪問團」事業을 年內에 實現하자라고 하는 目標를 가지고 있는 만큼 第3次 接觸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몇가지 問題를 놓고 서로 相互 理解와 讓步의 精神을 가지고 努力한다면 折衷點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一方의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相對側이 있는 것인 만큼 서로서로 조금씩 讓步하는 姿勢를 發揮한다면 앞으로 이 會談의 展望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質問：故鄕訪問團 構成問題하고 藝術團 關聯問題中에서 核心的인 問題가 무엇입니까?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지금 가장 重要한 것은 오늘 討論되었던 規模問題하고 그 다음에 訪問地問題, 그 다음에 訪問時期問題 이 세가지가 가장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藝術團 交換에 따르는 公演內容이라든가 또 公演回數, 中繼與否 이런 것이 이제 잇달아서 討論이 되어야 될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質問：故鄕訪問團 構成에 있어서는 어려운게 무엇이 있습니까?

答辯：지금 構成에 있어서는 우리側에서는 南과 北에 故鄕을 둔 離散家族들을 中心으로 해서 構成을 하되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사람을 中心으로, 그 사람들을 優先的으로 여기에 包含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 1985年 第1次 「訪問團」事業때 相對側 地域을 들어가지고 相逢對象者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냥 時

間만 보내다가 돌아온 그러한 先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故鄕訪問團 構成할 적에 相對側 地域에 相逢對象者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包含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고, 北側에서는 이 問題와 關聯해서 서울과 平壤에 故鄕을 둔 사람을 위주로 構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北側은 서울·平壤 두 곳으로 限定을 시켜놓고 있고 그 構成도 서울·平壤에 故鄕을 둔 사람 中心으로 構成을 하자 이것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質問 : 本會談과 故鄕訪問團의 順序를 바꾸어 우리가 讓步를 할 것인가 그 問題에 대해 앞으로 우리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答辯 :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本會談을 먼저하고 이어서 「訪問團」을 實現하는게 좋겠다는 것에는 그 理由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根本的으로 幅넓게 解決해 주려고 하며는 本會談議題로 잡혀있는 5個項 事業을 實踐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個項 事業을 實踐에 옮기면 離散家族問題가 根本的으로 幅넓게 다 解決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本會談을 우선 여는 것이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接近하는 아주 基礎的인, 基本的인 方向이다, 이것이죠.

더군다나 이 本會談 問題로 말하자면 지난 1986年 2月달에 平壤에서 열기로, 그러니까 第11次 會談 이야기입니다.

第11次 會談을 1986年 2月에 平壤에서 열기로 雙方이 合意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박해서 北側이 다른 理由를 대가지고 이것을

一方的으로 中斷을 시켰습니다.

그 中斷시킨 後에 우리側에서는 條件없이 이 本會談을 再開하자 하면서 우리나름대로 이 本會談에 임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었습니다.

또 北側도 1986年 2月 그 中斷措置를 내리기 前에 이미 自己들 나름대로도 準備를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 本會談 關係는 雙方 모두가 다 4年前부터 念頭에 두었고 또 準備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손쉽게 열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基本方途가 本會談이니까 이것먼저 열자는 것이 우리側 要求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準備面에 있어서도 本會談은 4年前부터 우리가 다 생각해 가지고 準備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訪問團」問題는 그 規模가 本會談 規模보다는 좀 數字가 많습니다.

지금 本會談은 代表團·記者·隨行員·支援人員 합쳐서 84名 規模입니다. 그런데 이번 「訪問團」의 경우 南北이 내놓은 것을 보면 500名에서 600名 程度입니다.

그러니까 이 規模面에서 「訪問團」이 워낙 數字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準備하는데 있어서도 時間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그것이죠.

그리고 藝術團을 交換하는데 있어서 公演의 內容을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 雙方이 準備하는 時間도 그만큼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側에서 이번 故鄕訪問團 構成에 相逢對象者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包含시키자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離散家族 當事者가 相對側 地域으로 出發하기 前에 최소한도 한달 前 쯤 해서 이 名單交換作業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다른쪽에 가령 400名의 訪問候補者 名單을 보내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 名單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家族과 親戚을 찾습니다. 그 結果를 또 相對側에 보내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中에 相對側 地域에 家族이 있는 사람을 故鄕訪問團에 包含시키게 되는, 이러한 所謂 사람찾고 알려주는 節次에 따르는 時間이 必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소한 한, 한달 以上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故鄕訪問團 交換에 必要한 최소한의 準備期間 이것을 우리가 考慮를 할 때에 이 本會談 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時間이 必要하겠다 하는 그런 判斷에서 했습니다.

質問 : 하나 더 追加해서 質問드리겠습니다.

北側團長 記者會見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文益煥·林秀卿孃 問題가 解決이 안되면 結局은 故鄕訪問團이나 本會談問題가 안되는 것이냐는 質問을 하니까, 그것은 대체로 前提條件은 아니라고 하지만 同時解決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同時解決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안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北側이 오늘 얼마만한 强度로 얼마만한 時間동안 그 問題를 提起를 했는지 또 안에서의 雰圍氣랄까 感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 저로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이 會談을 成事시키려고 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相對側을 자극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 質問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北側에서는 오늘 첫 發言 모두에서부터 文益煥牧師·林秀卿孃 問題를 擧論했습니다. 相當한 時間에 걸쳐서 擧論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側에서는 이 問題를 더 以上 擧論하지 않고 實質問題討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訪問團」規模라든가 또는 時期問題에 관해서 어느 程度 實質討議를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質問이 없으시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